

수지꿈 이야기

2023년 VOL _ 7



수지꿈학교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론적 당위성!

사회를 이루는 저변에 무수히 많은 조직과 공동체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생물체처럼 저마다의 생존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의 규모가 크든 작든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사회를 구성하는데 여러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수지꿈학교도 그러한 공동체의 하나로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15년을 이어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수지꿈학교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론적 이유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15년을 수지꿈학교와 함께 걸어온 제가 생각하는 학교의 '존재론적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아이들 즉, 공교육의 교육 내용과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일반 학교생활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든 아이들, 또 공부에 대한 중압감으로 학교에 가기 싫은 아이들, 심신의 아픔으로 인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웃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고 또 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입시 위주의 교육 내용을 강조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공교육 현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획일적 교육방식과 내용이 아닌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그냥 학교가 싫고 힘들어서 가지 않는 아이들이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 곳이자 의지할 수 있는 곳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찾으면서도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철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도 있지만 이 또한 중요한 경험의 하나이고 배움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대안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지꿈학교의 건강한 철학과 교육과정 이 공교육에 전달되어 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수지꿈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아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듯이 부모님들도 그 안에서 다양한 배움과 활동을 하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우리 마을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면서 크게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는 부모님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대안학교라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묵묵히 학생의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는 좋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들고남이 없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하나만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자유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을 배우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제법 그럴듯한 '존재론적 당위성'을 가진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끌리는 듯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함께 '행복한 자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함께 당위성을 채워가 보면 좋겠습니다.

2023. 12. 5 대문교사 여경샘

STRENGTHS

[우리들의 이야기]

- 와글와글 아이들 생활 엿보기 _ 4
- 제15회 입학식. 2023년 신학기 스타트!! _ 5
- 우리반 자랑 좀 해 볼까~~ 우리반이 찐!찐!찐 이지! _ 초등편 _ 6
- 초등 아이들의 여행을 세계로에게 들어 보았다 _ 16
-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나눔장터를 요모조모 파헤쳐 보자 _ 20
- 수지꿈의 북소리, 마을의 심장을 울리다. 수지꿈학교 <승무북가락> _ 22
- 수지꿈 고학년 활동기 - 중등 _ 24
- 중등 걷기여행, 학교살이 둘러보기. 이것이 형님들의 여행이다! _ 46
- 초등, 중등아이들과 부모님들까지 함께하는 수지꿈 옹기종기 미니운동회 _ 49
- 농구할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개구리! 수지꿈 농구팀 결성 _ 52
- 방과후 이야기. 방과후 돌봄 교실은 순항 중 _ 54
- 계절학교 이야기.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_ 56

[INTERVIEW]

-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 지나 _ 58
- 2023년 수지꿈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_ 62
- 1회 졸업생 부모, 수지꿈학교의 살아있는 전설 <산미테>를 소개합니다 _ 66
- 따뜻한 남쪽나라로 갑작스런 떠밍아웃을 한 남구와 쌍쌍이를 만나 보았다 _ 68
- 달콤함으로 후배들의 심장을 녹여버리는 졸업생 진술(셈)을 만나다 _ 70

[부모들의 이야기]

- 마음로 뻗어나가는 수지꿈. 안녕하세요, 수지꿈학교 연대일꾼 비아입니다 _ 72
- 마음의 마음이 따뜻해 지는 한 해였습니다! 살림일꾼 마음의 따뜻한 2023년 _ 76
-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경험해 보시라! 홍보일꾼 제인의 일꾼 생활기 _ 77
- 네로의 미션 임파서블 : 수지꿈학교 고학년용 별관 만들기 _ 78
- 엄마들도 덩달아 행복하다! 아빠와 아이가 즐거운 아빠모임 _ 80
- 한번 더 뭉쳐야 할 때가 왔다 "우리도 조례활동가가 될 수 있단가요?" _ 82
-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시작하게 해준 수지꿈! 잘 다니고 있습니다 _ 84
- 1학년 준수네 가족, 이렇게 수지꿈학교에 스며들다 _ 86
- 만화로 보는 수지꿈 생활기.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_ 88
- 느긋의 여러모로 좋은 생활을 담은 이야기! <여러모로, 좋다> 북토크 _ 90
-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모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_ 92
- 소모임 활성화를 외치는 수지꿈 가족들에게 우리 소모임을 자랑 합니다! _ 93
- 홈페이지 제작 이야기. 수지꿈 대문이 생겼어요! _ 97

학부모 대표 나디의 2023을 보내며 _ 98

우리들 이야기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들 살아났다!! 와글와글 아이들 생활 엿보기

2022년 조심조심 다시 시작하던 일상들이 2023년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활동이 빠질 수 없다. 날이 좋아지면 그동안 배웠던 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며 그 배움을 키우려 달려 나가기 바빠졌다. 다녀오고 나면 재잘재잘 아이들의 경험담으로 학교가 시끌시끌 와글와글 하다. 당연하기만 했던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수지꿈학교 아이들 활동을 깊이 있게 살펴 보았다.

특히 중등 친구들의 영혼이 녹아든 활동기는 다채롭다. 올해 수지꿈학교 큰형님들의 졸업여행은 7,8,9학년이 함께 했다! 졸업여행은 해외라며 통크게 해외로 졸업여행을 갔다.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여행은 어땠을지도 무척 궁금하다.

아이들의 생활로 깊숙히 들어가 살펴 보았다.

제15회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3년 신학기 스타트!!

새 학년이 됨과 동시에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꽃가마를 타고 입학하는 친구들, 그 꽃가마를 들어주는 형님들, 모두가 즐겁고 흥이나는 입학식이지요.이 현장을 6학년 김서우가 둘러보고 살펴 보았습니다. 파격 변신을 한 빙그레의 인터뷰까지!! 글 _ 김서우



3월 2일 목요일 수지꿈학교에서 제15회 입학식이 열렸다. 수지꿈학교에 트레이드마크 “꽃가마”로 신입생들을 맞이했다. 신입입생들은 모두 5명이었다. 세계로가 화려하게 사회를 봐주셨다. 그리고 학생들이 달달한 꿀성대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불러주었고, 여경샘이 멋진 기타소리로 감동을 주었다. 그 다음에 1학년 담임선생님 소개로 “빙그레”가 공주+요정+미스코리아 1등으로 꾸미고 오셨다. 아주 아름답게 요술봉을 들고 나오셨다. 정말 파격적으로 등장하셨다. 이에 사람들은 “빙그레의 용기! 정말 대단합니다!”며 감탄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위한 한마디와 선물을 받았고 학부모님들의 감동적인 편지로 끝났다. 세계로 선생님의 멋진 사회가 없었으면 심심했을거고 여경샘의 감미로운 기타 소리가 없었으면 조용하고, 빙그레의 파격변신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 같다.



파격변신 빙그레 인터뷰

입학식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부끄럽지만 내가 어릴 때 입어본 옷을 입어서 좋았어.

오늘 공주 옷 입을 때 어떠셨어요?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내가 공주가 된 기분이었어. 생각보다 안 창피했어. 모두 웃으니까 좋았어.

1학년 아이들과 올해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개구장이처럼 놀고 싶어.

1학년 생활교사를 내년에도 하고 싶으세요?

그건 내 맘이 아니야. 그래도 또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너무 귀여워서.



우리반 자랑 좀 해 볼까~~

우리반이 찐!찐!찐 이지!

2023년엔 어떤 반들이 생겼을까? 개성만점 특특 튀는 우리반 자랑, 여러 가지 활동을 들여다 보았다

빛나는 반 (1학년)_ 빙그레

1학년 빛나는 반에는 다섯 명이 어우러져 지낸답니다. 저희들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들이란 걸 아는지 이름도 딱 걸맞게 지었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섯 명의 아이들 빛깔이 어떻게 다른지 소개하겠습니다.



책의 바다에서 잠수하는 지우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 속 잠수함처럼 요란하고 소란스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듯 고요한 잠수함처럼 책을 보고 머리 생각을 말로 이어내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아이 몸으로 하는 활동은 부끄러워 부끄럽다 마다하나 한 번 해보려는 마음 자라면... 부끄러운 자리에 용기가 생기길 응원하게 되는 지우입니다.

곤충들의 벗 준수

한 손에 채집통을 들고 몸의 감각에 눈이 달린 듯 곤충들을 찾고 찾아 잘 살피고 살펴 본 뒤 다시, 풀숲으로 보내고 하늘로 날려 제자리로 돌려주고 타고난 마음은 바다 같아 돌맹이 하나 던져도 풍당 받아주는 아이 한 쪽 눈 찡긋 감으며 장난 어린 웃음으로 '뭐 하고 놀까'를 늘 준비하는 아이가 준수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다섯가지 빛깔

손끝 미술사 승우

색종이 접기도 칼 각으로 맞추고 종이 한 장으로 다양한 모양내며 이것저것 푹푹 오리고 붙여 기발한 놀잇감 만들고 물놀이를 세상 제일 좋아해 전생이 있다면 돌고래였을까 수와 셈을 좋아해 열 손가락 꼼지락 거리며 진지하게 풀어내고 피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춤을 출 땀 아이들이 되는 아이 한글을 떼자 글쓰기로 자기 마음 열어 보이며 마음 불편한 일 못 참아 어떻게든 풀어내며 지내는 승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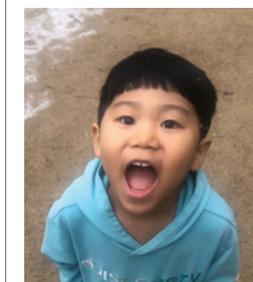
들꽃 같은 아이 문흔

또래보다 한 살 어리고 한 국말 익숙하지 않아도 함박웃음 온 종일 얼굴에 담아 학교의 귀요미로 등극하고 무엇이든 스스로 해 내려는 의지 또한 으뜸이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듣고 자세히 그려내는 솜씨가 돋보이는 아이 수학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택견을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하고 학교를 좋아하는 흔이랍니다.



말을 참 맛있게 하는 선울

빙그레 선생님은 내 이름을 잘 까먹으니 별명을 다시 지어야 해요 '금붕어' 선생님이요. 들꽃으로 물감 만들어 색칠할 때 꽃 한 송이 스욱 그리고선 '산더미꽃'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요리 시간에 소금 간을 할 때 '한 꼬집'이라 말하고 다람쥐처럼 날랜 발놀림으로 축구공을 요리조리 움직이고 도토리 알처럼 품에 소옥 들어와 안기는 선울이랍니다.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가만히 하루를 돌아보고 지나 온 날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저에게 보약입니다. 아이들과는 맞추며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질 때, 나를 진지하게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들끼리 되도 않는 진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마음 속에서부터 웃음이 번지고 몸으로 놀게 됩니다. 이렇게 빛나는 아이들과 보내는 저, 빙그레는 행복합니다.



푸른반 (2학년) _ 지혜

안녕하세요. 빛나는 푸른 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우리반은요~ 책을 자주 읽어요~ 물론 책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화책은 아주 잘 본답니다. _소은



우리는 텃밭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마다 텃밭 농사를 해요. 농사를 지어서 직접 요리를 해 먹고 자기가 만든 걸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나눠 먹기도 하죠. 텃밭 수확이 힘들 수도 있지만 다~~~ 키워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뿌듯합니다. 수확은 재미있어요. _지현



우리는 텃밭에 콜라비랑 참외랑 상추랑 고추랑 많이 심었어요. 우리는 식물 들한테 물을 주고 관리도 잘해요. 어떨 때는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기도 해요. 또 잡초가 많아요. 옷집밥 시간에 우리가 키운 작물로 썩 튀김이랑 부침개도 만들어 먹었어요. 요리하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어요. _유안



우리는 울여름 텃밭 농사를 지었어요. 그 텃밭에는 참외도 있었는데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니 개미 떼의 습격으로 참외가 망가졌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

아요. _한결
우리는 가끔씩 놀러가기도 하는데 놀러가면 좋아요. 특히 들살이와 걷기 여행은 정말 재미있어요.



_래인

들살이 갔을 때 첫 번째 날에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둘째 날에는 수영을 했어요. 친구들과 과자도 먹고 좋아요.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_이현

계곡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물놀이가 제일 즐



거워요. 힐링을 즐겨~~!!
_태희, 지민
우리 학교에는 구름사다리가 있어서 구름사다리를 할 수 있어요. 가끔씩 철봉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늘을 가



장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_서준, 성재
우리반은요~ 한 달에 한번 숲 해설 수업을 해요. 그때 포충망으로 잡은 방아깨비예요. 다리를 잡으니 방아깨비가 열심히 방



아를 찡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_래인

1학기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배웠어요. 아직 잘하진 않지만 재미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리코더를 안해요. 그래도 쉬는 시간



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_시연

푸른반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공부는 좋아요~!!
_서준, 이현

가끔 느티나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곤 해요. 만화책이어서 더욱 재미있

었어요. 느티나무 도서관에 또 가고 싶어요. _이안

우리들은 가끔씩 도서관에 가서 독서를 해요. 독



서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다같이 있는 게 귀엽죠?
_지민

우리 반은 몸놀이를 제일 좋아해요. 몸놀이 때 주로 피구, 말미잘을 하는데 시



원한 강당에서 몸놀이를 하니 너무 좋아요. _이안, 이현, 시연
몸놀이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자애들이 계속 몸

푸른반은 행복해요



놀이 할 때마다 말미잘을 한다고 해서 싫을 때도 있어요. _한결

우리반 친구들요!

성재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시연이는 활발하고 유안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지민이는 친구에게 친절해요.

이현이는 웃기고 재미있고 한결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서준이는 나무를 잘 타고 래인이는 똑똑해요. 소은이는 활발하고 태희는 귀엽고 이안이는 곤충 박사예요. 그리고 저는 글을 잘 써요. -지현-



별반 (3학년) _ 세계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는 별반



수지꿈학교 3학년 별반이지요!

별반이 궁금하시지요?
‘백 번 말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별이들은 늘 행하지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마시고 별반에 놀러오세요. 별이들의 순수한 눈빛! 별이들의 천진난만한 행동! 별이들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 수지꿈을 매료시키지요.



언제나 밝고 잘 뛰어놀고 열정 가득해서 잘 다치는 별이들이지요~ 엉뚱한 장난으로 규칙을 잘 어기고 해맑은 웃음으로 넘어가는 별이들이지요~

한없이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잘하는 별이들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너도나도 잘 펼쳐서 매일 싸우는 별이들이지요~



양보와 배려가 넘쳐서 혼날 일에는 서로들 안했다고 양보하는 별이들이지요~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별이들 세상은 다채롭지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별이들의 3학년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즐겁고 보람도 있고 성장도 많이 하고 있지요.



이렇게 예쁜 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사랑 가득한 믿음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되겠지요?

우리 소중한 별이들! 별반 노래처럼 “먼 훗날 꿈 이룬 별반 다시 만나자!” 별이들 뒤에는 늘 세계로 가 있다~ 별반 아자~아자~ 파이팅!



별이들

마음을 담은 '별반' 노래 느껴보시지요!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늘 푸른 별이 되어
이 멋진 세상을 꿈꾸며 아름답게 빛나리라.
저 높은 광교산 빛 삼아 맑은 별반이 되어
빛나게 이 땅에 내리면 행복하게 만나리라.
먼 훗날 꿈 이룬 별반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꿈꾸며 별반으로 되리라.



파이어지나반 (살림반 4,5학년) _ 지나



학생들이 사랑하는 우리 반의 장점!

- ▶ 우리 반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좋은 장점인 것 같다. 수업 종목도 재미있는 게 많다. 그러면서도 공부가 잘 되는게 신기하다.
- ▶ 우리반의 장점은 모두가 활기차고 재밌다. 모든 수업이 재밌고 쉬는 시간이 길다. 선생님이 재미있으시다.
- ▶ 비록 얌전한 사람은 없지만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좋은(?) 친구들이 많다. 교실은 굉장히 편안하고 집 같다.
- ▶ 모두가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친구 또는 오빠들 덕분에 웃음이 끊

- 이지 않는 우리 반! 무언가를 알면 알려주고 옹기종기 그림도 그리고 가끔씩 싸우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풀린다.
- ▶ 4-5학년으로 이루어진 반이다. 운이 안 좋으면 화장실 청소가 나올 수 있는 게 단점이다. 참고로 내가 이번 주 화장실 청소다.
- ▶ 우리 반은 지나샘이 있어서 좋다. 정말 친절하다. 두 번째 장점은 컴퓨터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인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 ▶ 장점을 먼저 소개하자면 학생이 7명인데도 정말 충분히 시끌시끌하다. 몇 명이 더 들어오면 더 활발한 반이 될 것 같다.

반 친구들은 가끔 짓궂은 장난을 치지만 친절하고 재밌다. 함께 지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외 소개하고 싶은 것

- ▶ 차은우 같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수정 잘 찾는 사람, 잘 놀리는 사람, 그림 왕, 운동 잘하는 사람, 종이접기 챔피언 등이 있다.
- ▶ 나는 몸놀이가 가장 재미있다. 내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좋아해서 난 몸놀이가 좋다.
- ▶ 매일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웃어주는 지나샘한테 감사하다. 지나샘반이 되어서 난 거의 매일매일 행복하다!

- ▶ 선생님이 언제나 웃고 계시다. 우리가 몰래 깜짝 놀래키면 놀랐다가 다시 활짝이다.
- ▶ 월요일은 내가 다 싫어하는 수업이다. 수학, 전채회의가 싫다.
- ▶ 과목 중에 미술, 그림 그리기 시간이 제일 좋다. 말과 글 시간에 맞춤법도 열심히 배우는 게 느껴진다. 수학은 어렵지는 않고~ 할만한 정도?
- ▶ 선생님이 착하다. 비록 그림은 못 그리시지만.. 수업 이해가 잘 되게 말해주신다. 그리고 엄청 웃기다. 혼날 것 같다가 혼내지 않으신다. 그치만 하지 않아야 될 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신다.

우리 반 단점? 어려운 점!

- ▶ 여름에는 습하고, 청소는 힘들다. 그래도 내 청소가 끝나면 노래도 들을 수 있고 하루 마무리만 남아 있어서 기분이 좋다.
- ▶ 너무 활기차서 시끄럽다! 학생이 적어도 시끄럽다. 급식에 불량식품이 나오지 않는다.
- ▶ 맛있는게 나올 수도 있는데 맛있는 것이 나오기가 힘들다 (?)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파이어지나반



내며 즐거움도 창조해 내는 창조의 신 **현민**

힘!하면 희찬! 파워와 카리스마를 담당하면서



도 그것을 정의롭게 사용하는 재치만점! **희찬**



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매너 보이 **지호**

맑고 순수한 마음, 청량한 웃음소리로 교실 분위기를 맑고 밝게 빛내주는! 보석 같은 존재 **유담**



나의 이야기 주머니는 마를 날이 없으니 심심한 사람은 모두 내 옆에 모여라 ~! 이야기꾼 **진희**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 쓸모를 찾아 생명을 불어넣어 놀이를 만들어 내고 매일 지나에게 사랑 표현으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애교 만점 **지민**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주변에는 사랑과 놀이가 끊이지 않는, 유행어 알잘딱깔센(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딱이 친구! 믿음직한 **세연**



서로 다른 일곱 빛깔로 교실을 가득 채워주는 우리 예쁜 파이어지나반 친구들 너희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합니다.

시반 (살림반 4,5학년) _ 에이든



수지꿈학교에서 처음으로 맡게된 우리 시반은 반 이름만큼이나 미래가 창창하고 또 기대되는 반이에요. 시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선생님의 'Aden'(에이든)이라는 영어 이름과 알파벳 'I'(아이)를 소리나

는 대로 읽어 에이든과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별생각 없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반 이름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참 잘 지었다고 생각 할 때가 많아요. 우리

반은 이름이 주는 느낌 그대로 앞날이 창창하고 기대되는 그런 반이에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우리 반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만든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바로 공부를 하면 만큼 놀 수 있다 것이지요. 쉬는 시간이 되면 정신 없이 밖으로 나가 뛰어 놀다가도 수업 시간이 되면 교실로 들어와 수업



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단합이 잘 되는 반이에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다가도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사이가 좋아져요. 4학년과 5학년이 함께 합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가끔은 학년끼리 다들 때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 배움을 얻고 서로를 더욱 챙기곤 해요. 시반 사랑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시반

우리 반은...

해원 우리 반은 언어 공부 많이 해요. 창의적이고 흥미진진한 창작 활동들을 해요. 무엇보다 고생에 대한 보상이 두둑해요!

하늬 우리 반은 정말 활기차요! 이미 한계를 넘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 반에는 항상 상상도 못한 신기한 노래가 쉬는 시간마다 흘러나와요. 제일 큰 장점은 공부를 할 만큼 쉬는시간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우리 반은 노래를 자주 듣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어 좋아요. 항상 충분한 쉬는 시간이 있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울 우리 반은 조용할 때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심심할 틈도 없어요. 반에 흥미로운 것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개그를 하실 때 너무 웃겨요. 컴퓨

터로 쉬는시간 마다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아요. 여러 의미로 반에는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매일 영어 숙제가 있어서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게 좋아요.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반 모두가 잘 해오면 쉬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수현 하울이 오빠는 기타를 잘 쳐요. 해원이 오빠는 진지해요. 제인이는 그림을 잘 그려요. 상원이는 미국에서 온 친구라서 영어를 굉장히 잘 해



제인 우리반은 토론과 우쿨렐레와 같은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해요. 또 쉬는 시간이 많아서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어 좋아요.



요. 하늬는 귀여워요. 선생님은 아마도 개구쟁이예요.

상원 제가 생각하는 시반은요... 일단 친구들이 정말 호흡이 안 맞아요. 그치만 각자의 개성이 강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옆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들살이, 학교살이, 그리고 별반의 히든여행 그 이야기를 에너지 뽀뽀 세계로에게 들어 보았다

글 _ 하이밍



다어!만났다!
여울이가 처음 학교 체험을 했던 날이 다시 리 플레이되는 순간이다. 7살짜리 꼬맹이가 어찌나 즐겁게 학교 체험을 했던지 상기된 얼굴로 고백하던 한 마디. 엄마 나 이 학교 다닐래!! 그때의 체험 교사가 바로 세계로쌤! 그 세계로쌤을 1년의 안식년을 거쳐 드디어 우리 아이들의 3학년 담임쌤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 1년 쉬셨으니 에너지 넘치는 우리 아이들을 맡으실 때도 되셨지!라며. 부담없이(?) 아이들을 안겨 드린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에너지 넘치는 선생님이 만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저-중학년 아이들의 학교살이, 걷기 여행, 들살이 +별반 히든여행을 에너지 넘치는 세계로쌤의 시선 너머로 들여다보자.



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감사한 은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은사님들을 바라보며 나도 이런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들 얼굴에 낙서하기? 처음 시작은 옆에 있는 아이였지만 나중에는 전교생 아이들의 얼굴이 다 낙서 투성이가 된 거예요. 서로 깔깔거리며 마주하고 함께 웃고.. 우리 어릴 때 한번 씩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즐거운 추억들을 되물림해주고 싶어요.

하이밍(이하 하)_ 학교살이 할 때마다 따스하게 피워지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항상 마음 따뜻하게 다가온다. 세계로쌤의 초등 시절은 우리 아이들과 닮아있었을까?



세계로(이하 세)_ 네. 저도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스카우트 많이 했잖아요. 그때 또래들이랑 운동장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우리 아이들과 학기 중에도 불을 지펴서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구워 먹으며 추억을 만들었던 거 같아요.

하_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는 참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런 이유로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하_ 하이라이트로 뽑을 아이들과의 여행과 이유는?

세_ 글썄요 모든 순간이 다 좋아서 하나를 뽑긴 힘들어요. 여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거 같아요. 아이들에겐 여름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여름 들살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맘껏 친구들과 뛰어놀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물놀이하고.

하_ 아이들이 들살이를 하게 될 때마다 느끼게 될 감정 중 이것만은 꼭 느꼈으면 좋겠다 싶으신 것은?

세_ 그 순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있는 친구들과의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 이 순간을 떠올렸을 때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창 시절을 너무 즐겁게 보냈거든요. 여행 동아리를 만들어 틈만 나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서 너무 즐겁게 보냈는데 친구들

하_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행의 사건 사고는?

세_ 사건 사고는 아니었지만 우리 반 아이들의 주도하에 잠자는 아이

하_ 걷기 여행 중 아이들이 기나긴 길을 걸으며 많이 힘들어하고 투덜거리기도 했을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격려해주시고 다독이셨을까?

세_ 제가 아이들을 격려하고 다독인 건 없어요. 아이들끼리 서로가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나아가요.





네가 필요할 때 꼭 나누어 줄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런 주고 받음 속에서 뿌듯함도 느낄 거예요. 그런 나눔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_ 여행을 떠나보내는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으신 점 세_ 보내실 때는 다 잇고 보내주시기? 아직 어린 저학년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힘들었던 하루 끝에 선생님을 졸라요. “엄마한테 전화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어요. 끝까지 해낼 수 있을 용기를 심어 주시길 바라요. 엄마가 응원할게. 잘 해낼 수 있을거야~

하_ 갑작스럽게 당일로 정동진을

다녀오겠다고 하셨을 때 놀람과 동시에 청춘 만화를 많이 본 탓인지 제가 다 설레었다. 하_ 히든여행 정동진을 계획하게 된 연유와 계획하셨을 때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었을까? 마을 탐방이 어떻게 정동진까지 흘러 가게 되었을까?

세_ 마을과 지역 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수업이었어요. 이 문제를 맞추면 정말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죠. 전혀 맞출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건태가 어디선가 봤는지 맞히더라구요. 문제가 세계에서 바다가 가장 근접한 역이 있는 곳은?이었는데 맞히더라구요.

하_ 정답을 맞힌 건태가 여행을 할 때까지 못했네요! 너무 아쉬워했겠어요.

세_ 그렇죠. 열이 나서 함께하지 못

해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데 건태가 엄마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 왔어요. 정동진 바다를 앞에 두고 아이들과 통화를 했죠.

사진에 기록하는 수업이 있어 그 부분을 아이들이 펼칠 때마다 건태가 무척 아쉬워해요.

세_ 부모님들께서 염려되거나 걱정 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할 것 같아요.

하_ 아직 어린 저학년 아이들이 멀리 떠날 때마다 휴게소를 거쳐갈텐데 선생님과 친구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됐던 것 같아요.

세_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끌고 가서 함께 데리고 오고 버스타기 전 인원을 헤아린 후 버스에 앉은 후에도 서로의 짝공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덜어서도 될 것 같아요.

하_ 아이들과 자유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어디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고, 아이들에게 어떤 풍경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실까?

세_ 독도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저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기상 상황이 받쳐 주지 않아 들어가 볼 수 없었거든요. 독도는 그렇게 운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아이들과 수지꿈

깃발과 태극기를 들고 독도에 가서 힘차게 나부끼고 싶어요. 지리적

으로 역사적으로 사연 많은 독도에 서 그런 경험을 함께 한다면 가슴



에 남을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로 선생님과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선생님의 눈에 그려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닷가에 밀려 해안가를 가득 메운 반짝이는 조약돌처럼, 자글 자글 서로 웅기종기 모여 소리를 내는 무지개 빛깔 보석들처럼 마음 안에 그려진다. 아이들의 사소한 것도 사랑 가득 담은 눈으로 바라봐주시고 아이들마냥 목청껏 소리지르고 뛰어다니시는 열정의 에너지 원천이 아이들이라고 하시니 아이들이 얼마나 선생님의 품 안에서 따스한 햇살 닮은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인터뷰 내내 아이들이 예쁘다 기특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학교살이, 들살이, 견기 여행은 그런 사랑 가득한 선생님들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즐겁게 친구들과의 행복과 추억을 쌓고 스스로에 대한 인내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올 한 해 매 순간 사랑을 듬뿍 담아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돌봐 주시며 최선의 최선을 보여주신 세계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나눔장터를 요모조모 파헤쳐 보자

무얼 살지, 무얼 팔지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눔장터를 기대하는 아이 얼굴이 설렘으로 가득 차있다. 나눔장터 날 하교하는 길에 만나는 아이들 손에 들린 종이 봉투 안에도 설렘과 기쁨이 차있는 듯 아이들마다 발걸음이 가볍다. 만나자마자 뭘 샀는지 자랑하기 바쁘다. 그렇게 좋을까. 나눔장터의 무엇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지 궁금하다. 글 _ 은비

나눔장터 시작할 때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아나바다’의 개념을 알려주신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절약하기, 아껴쓰기와 같은 가치를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지만 여러 번 말하면 잔소리다. 하지만 수지꿈 아이들은 무려 당근마켓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중고 물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있다. 뭐라도 버리려고 하면 누구 주라는 말부터 한다.

또한 수지꿈 아이들은 나눔장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관념을 체득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입학만 하면 수지꿈 통장이 아이들에게 개설되고, 입학 축하금으로 3000원을 받는다. 수지꿈에서는 가상화폐 ‘별’을 사용한다. 어린이 일꾼들이 통장에 있는 액수만큼 ‘별’을 나누어 주면, 나눔장터에서 물건을 거래하고 남은 별은 다시 저금한다. 아이들은 갖고 있는 별만큼 지출해야하고 조금이라도 별을 아껴 물건을 사기 위해 흥정을 하기도 한다. 이 별은 청소와 같은 봉사활동이나 각 반에서 정해진 약속을 이행하면 주어지기도 했고, 2022년부터는 4.19마라톤, 학교살이 등 전체 행사에 참여해도 별을 받을 수 있다.



자연스레 사회의 경제 운영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꿈 회의에서 나눔과 기부에 대해 배운 후, 졸업생을 중심으로 남은 별 화폐를 자진해서 기부하는 멋진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5년에는 새롭게 나눔장터에 경매가 도입된 해이기도 하다. 첫 번째 경매사는 영지버섯 선생님이였다. 당시 지훈이가 가져온 코브라 표본이 열린 경쟁을 거쳐 강훈이가 낙찰받는 영광을 누렸다. 알고 보니 코브라 표본이 뱀술이었다는 후일담이 있었지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경매 과정도 살펴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에 그 뒤로 경매는 나눔장터에 빠질 수 없는 약방의 감초가 되었다. 경매사 역할은 금방 아이들에게 맡겨졌는데 최초의 수지꿈 경매사는 당시 대풍년반 유민이, 순찬이었다고. 그 뒤에는 투표를 통해 뽑힌 산이와 태울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경매사는 경매에 성공한 물건값의 10%씩을 떼어 일당별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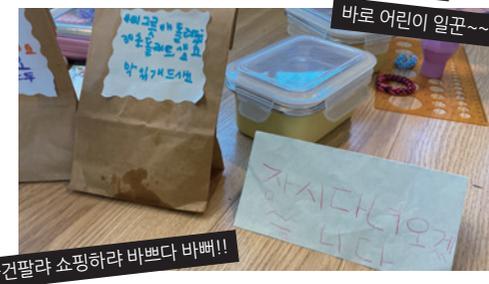


2015년도에는 경제 교육을 강화하여 수익금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 적도 있었다. 세금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논의해 보길 바라는 시도였다. 아이들이 웬지 손해 보는 기분이 들어 처음에는 세금 납부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나눔장터에서 빠질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없다면 나눔장터는 팔없는 봉어빵이다. 바로 먹거리. 나눔장터 초기에는 점심시간부터 나눔장터를 시작해 꿈 화폐로 미니돈가스, 샌드위치, 떡볶이 등을 사먹었고 특정 반이 돌아가며 먹거리를 전담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도 하였다. 당시 ‘꿈 화폐가 없는 친구들은 청소를 통해서 화폐를 확보해서 사먹게 하거나, 친구들이 서로 사주겠다고 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록도 있어서 어찌나 경겨운지. 갈수록 먹거리는 진화하였지만 나눔장터에 먹거리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현상과 아이들 스스로 음식을 만들지 않고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음식을 판매하는 일이 많아 나눔 장터 의미가 퇴색되어서 한때는 먹거리를 특정 학년에게만 제한을 둔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곧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음식은 판매가 가능 하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부활한 테마방. 초기 나눔장터에서는 나눔장터가 끝난 후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테마방을 운영하였다. 영화방, 미용실, 운동장 자유놀이방, 보드게임방, 공기놀이방, 아이클레이방, 염색방, 레고방이 있었고 그중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의 자치적 활동의 묘미를 살린 미용실. 찾아온 동생들 머리도 묶어주고 예쁘게 딸아주었는데 특히 파스텔을 갈아 뜨거운 물에 개어 호일을 이용해 염색을 하는 놀라운 창의성이 돋보였다. 올해 테마방이 다시 부활했다. 영화방(푸른반), 보드게임방(지나반), 미용방(AI반), 춤방(별반), 만들기방(빛나는반)이 운영되었다.



매번 나눔장터 후엔 수지꿈 카페에 그에 대한 피드백이 올라와 있다. 나눔장터가 교육의 장을 넘어 아이들이 누리는 학교생활의 활력소로 단단히 자리 잡게 된 데는 교사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나눔장터 피드백 중 ‘나눔장터는 시골벽적하면서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재미있는 활동의 장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을 보면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 느껴진다. ‘별을 소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교사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

는 것도 좋겠다’라는 피드백에서 ‘분식데이’가 생겨난 것처럼. 마지막으로 안 팔리는 물건 떨어가 시작 되었을 즈음엔 6학년 선배들이 통장에 남은 별을 탈탈 털어 동생들이 미처 못 판 물건들을 사준다고 한다. 절약 정신, 경제관념을 심어주자고 시작된 나눔장터지만, 여기서는 누가 제일 이윤을 많이 남기는가에 대한 치열함은 없다. 친구, 동생, 선배, 선생님들까지 같이 어우러지며 즐기는 수지꿈 나눔장터는 정을 나누는 곳이 아닐까.

수지꿈의 북소리, 마을의 심장을 울리다 수지꿈학교 <승무북가락>

올 한 해 마을 곳곳에서 심장을 파고드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이름 널리 각인된 “승무북가락” 정예부대 팀의 활약을 둘러보자. 그리고 이 팀을 이끌어주셨던 온화한 카리스마의 화신, 본인은 결코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칼각의 군무를 이루어내시는 빙그레쌤도 만나 보았다. 글 _ 비아



INTERVIEW I

풍물인으로서의 빙그레쌤

26살쯤 누군가 장구 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첫 눈에 반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국악방송이 나오면 채널을 돌릴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던 국악이었는데 직접 보고 쳐 보니 그 매력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만 4-5년을 풍물에 빠져 살았어요. 자려고 누우면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장단을 치다 잠들고, 걸을 때 걸음걸이로 박을 맞추며 장단을 외우고, 산행을 할 때면 팽과리를 가지고 다니며 폭포 앞에서 훌림가락을 연습할 정도로 몰입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 그 중간 즈음에서 풍물을 접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싶은 지점이 명확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지점을 넘자니 즐기면서 하는 풍물이 아닌 고행의 풍물이 되겠다 싶어, 초중고 학교 풍물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풍물을 즐겁게 만나게 해 주는 이음새가 되자. 그리고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큰 스승을 만나게 해 주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지금껏 풍물을 생활 속에서 즐기며 가야금, 해금, 판소리까지 연관지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INTERVIEW II

승무북가락팀의 탄생

작년에 2,3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장단은 ‘휘모리장단’이에요. 휘모리는 빠르게 휘몰아 친다는 뜻을 갖고 있지요.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게 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일수록 휘모리 장단에 경충경충 뛰면서 즐거워 한답니다. 그

런 기운의 장단을 북으로만 치니 가슴까지 울리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가락이 휘모리장단입니다. 작년 2,3학년에 처음 승무북을 조금씩 가르칠 때 ‘느낌’이 왔어요.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며 가르친 게 지금까지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운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아이들이 너끈히 해내는 걸 보며 무척 뿌듯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가락을 쉬는 시간마다 두드려 가락을 외우고 그 다음 진도를 더 가르쳐 달라 떼를 쓰는 아이들의 끈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행사, 학교 행사에서 북을 두드릴 때 두근거리는 아이들의 마음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모습 하나 하나가 대견했습니다.



승무북가락팀의 전천후 활약상

첫 시작은 작년 12월 두레생협 상생장터 “마주하장”이었다. 유난히도 추웠던 날, 당시 2,3학년 꼬꼬미였던 아이들이 절도 있는 몸짓과 속이 뽕 뚫리는 힘찬 북장단으로 무대를 찢었다. 가히 추위를 까맣게 잊게 할 울림이었다. 이 귀한 배움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마을 예술문화의 큰 축을 만들어 가시는 법청알챙의 지휘자, 이혜경선생님의 눈에 이 영상이 들어간 이상.. 게다가 빙그레쌤과 혜경쌤은 오랜 지인이자 절친이라고. 다른 빛깔의 지도력과 노후가 무르익은 두 분의 콜라보가 연결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그 결과 머내만세운동에서 “8호 감방의 노래”를 더욱 웅장하고 가슴 저미게 만들어준 승무북가락팀이 정식으로 마을에 존재를 자리매김했다.

그 후 ‘어른도 난타 배울 수 있나,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 우리 행사에도 출연해줄 수 있나’ 러브콜들이 쇄도했다. 그러나 부피가 상당한 북과 북채, 거치대를 실어나르며 아이들과 부모들이 시간을 맞춰 출동해야 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피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동원’되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으면 했다. 그러는 가운데, 4·16 세월호 9주기 기억공연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의 북을 울렸고, 분당지역공동육아 단오제 때 수많은 아가들과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수지꿈을 알렸다. 특히 오픈하우스와 입학설명회 같은 중요



한 학교 행사에서 감초 역할을 특히 해준 고마운 친구들. 그러나 같은 장단으로 몇 번의 무대를 하면서, 보는 사람보다 하는 아이들이 더 지루해진 모양이었다. 또 한 번의 큰 무대인 제6회 머내영 화제에서 오프닝 무대를 제안 받았을 때, 부모들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주신 빙그레쌤은 방과 후에 몇 회 수업을 추가로 진행하여 새로운 가락을 덧붙였다. 수업시간에 했던 수고를 감내해주신 선생님께 무한 감사. 덕분에 한층 더 깊어진 소리로 아이들은 600명 관중 앞에 섰다. 좌석이 몇 개인지 일일이 세고 다니며 심장이 터질 거 같다 하더니, 무대에 서자마자 그 눈빛과 몸짓 전체에서 자신감이 솟구쳤다. 실수해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자세를 잡았다. 옆 친구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 열심의 순간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빙그레쌤은 말 그대로 빙그레 지켜보고 계셨다. “틀려도 괜찮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맑은 미소를 띠고. 승무북가락팀의 진수는 여기에 있었다.

작은 무대는 무대도 아닌 양 점점 연예인병에 걸리는가 싶었으나. 입학설명회를 끝으로 올해의 활약을 막을 내렸다. 현재 2학년 아이들이 방과후 음악난타 수업으로 입문 중이다. 풍물도 음악의 한 장르이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도 타악의 큰 소리가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예술은 가볍게 스치듯 경험하다가 자기가 끌리고 하고 싶은 것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빙그레쌤은 말씀하신다.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귀한 배움을 얻은 아이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그 명맥을 이어가길 바라는 건 내 욕심만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하고 싶은 승무북가락팀. 꼭 다시 만나자!!



승무북가락보러가기



영끌반 (6학년) _ 영영

영혼을 끌어올려 학교생활에 최선



시골벽적이고 활기찬 영끌반을 소개합니다. 저희 반은 너무 활기차서 영영샘이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영끌반은 영영이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영이 끌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반은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궁금한 게 많아 선생님께 질문이 끊이지 않아요. 가끔씩 아주 산만해서 1학년 교실 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남자, 여자 따로 놀다가도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도 잘 놀입니다. 우리반에 오면 MBTI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반 이상이 1인

데, 그들이 제일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기는 'E'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노래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취향이 많이 달라서 문제입니다. 점심 시간이나 청소시간에 원하는 노래를 듣고 싶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회의를 통해 노래듣기 순서를 정해도



늘 야단법석입니다. 노래를 듣다가 아는 노래가 나오면 떼창을 하는데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소리가 온 학교에 크게 들린답니다. 또, 한 명이 말하면, 마치 하이에나처럼 말을 덧붙여요. 우리반은 다들 개성이 강하고 해야 할 말은 꼭 하기에 싸울 때도 있지만, 의견을 잘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모두 목청이 좋아서 목소리가 크지만, 수업할 때는 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토론, 프로젝트 활동과 몸놀이입니다. 사회역사프로젝트에서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직접 그 장소에 찾아가서 정말 좋습니다. 1학기에는 4.19 민주묘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광주 전남대학교, 금남로, 전일빌딩, 민주묘지를, 6.10 민주항쟁이 있었던 명동성당, 연세대학교, 이한열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2학기에는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게 될까 기대됩니다. 1학기 출판 프로젝트는 글'만'쓰기였습니다. 사실만 나열하면 빠꾸를 먹어서 힘들었습니다. 2학기부터는 스스로 공부 시간에 개인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요리, 일본어, 뜨개질, 역사 공부, 사진, 기타 연주, 소설쓰기 등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힘이 들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기대됩니다. 올해는 몸놀이 시간에 택견을 배우고 있는데, 신나게 뛰어노는 몸놀

이를 더 좋아합니다. 농구, 축구, 피구 등 시간만 있으면 열심히 몸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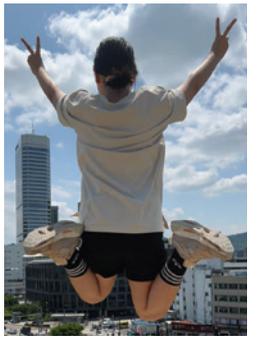
이 책을 우리 학교를 모르는 분들이 보신다고 해서, 조금 소개해볼게요. 수지공학교는 우선 환경이 좋아요. 학교 바로 옆에 광고산이 있고, 예쁜 꽃도 풀도 많아요. 공기도 물도 깨끗해서 봄이면 도롱뇽알, 개구리 알을 만날 수



있어요. 사마귀, 메뚜기, 여치, 잠자리 등 반려 곤충을 키울 수도 있어요. 체력을 키우고 싶을 때는 광고산을 등산하면 되고요. ㅏㅏ 중등에서 무인 매점을 운

영하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편의점은 없지만, 생협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방과 후 돌봄이나 가야금을 배우기 전에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매점부는 음식을 냉장고에 정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등의 일을 하는데 관리는 좀 힘들어요. 우리학교는 전교생과 다 알고 잘 놀아요! 같은 반 친구 뿐 아니라 전교생과 두루두루 알고 친하답니다. 친구가 더 많은 느낌이 들어요! 여행 가기 전 학년을 섞어 조를 만드는데,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공동체놀이의 대가예요! 홍삼, 다고닥, 바니바니, 다방구, 사방치기, 피구, 줄넘기, 개판축구, 농구 등등... 시간만 주세요. 열심히 놀게요. 노는 것은 자신 있어요! 우리학교는 매년 걸기여행, 들살이, 학교살이를 해요. 걸기여행은 재미있는데 힘도 들어요. 체력

강화는 기본이고 팀워크의 중요함을 배울 수 있어요. 인생의 쓴 맛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ㅎㅎ 공동체로 함께 돕고 응원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들살이, 학교살이도 엄청 재미있어요. 이번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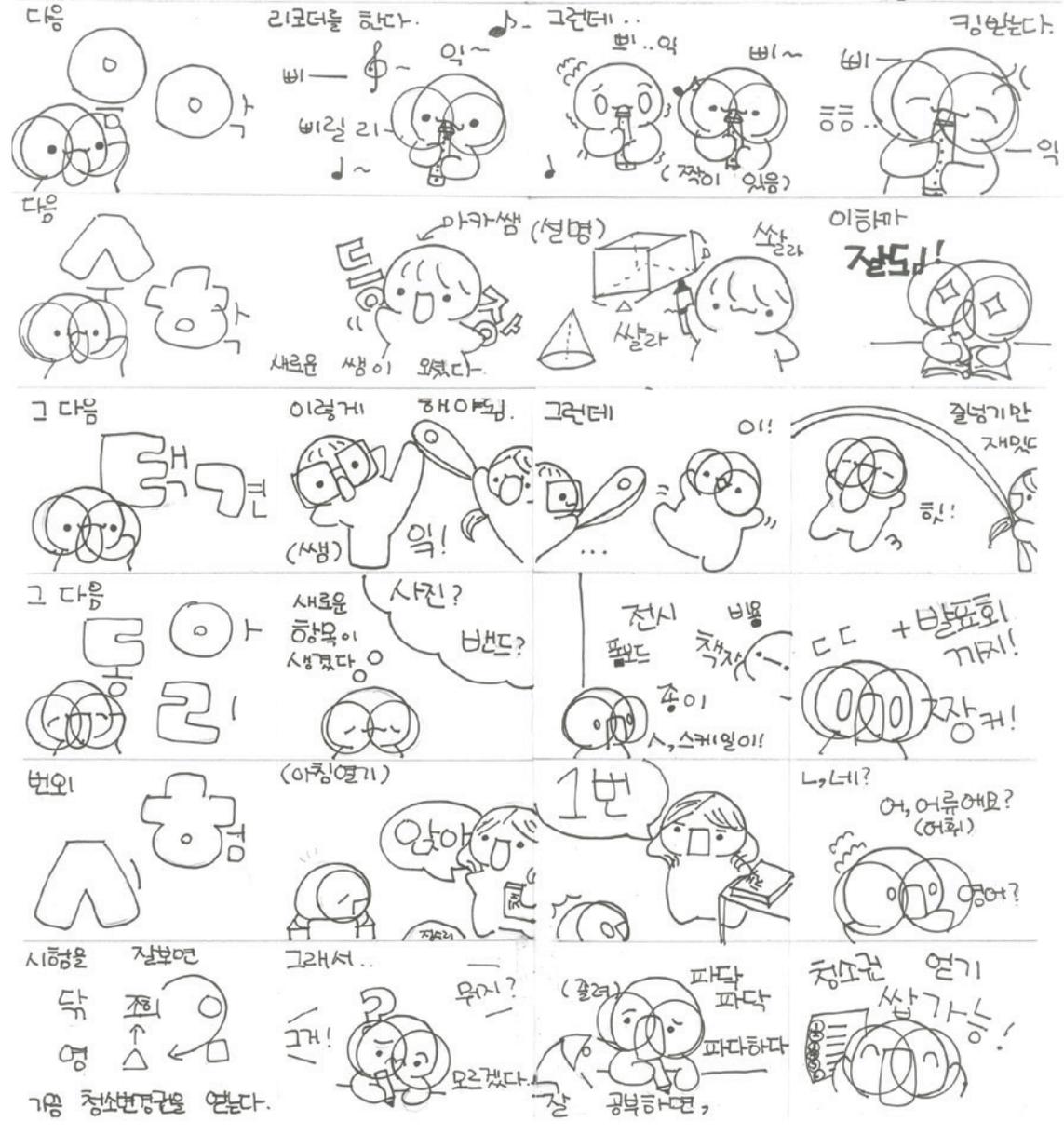
을 들살이에는 우리반끼리 전주로 반살이를 다녀왔어요. 더운 날씨에 자전거를 5시간이나 타고 레일바이크까지 타서 허벅지가 터지는 줄 알았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땀을 줄줄 흘리

며,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또 가고 싶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어요. 리코더, 우쿨렐레, 사물놀이, 칼림바, 가야금, 난타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해요. 리코더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첫가락 행진곡도 볼 수 있어요. 우리학교는 6학년부터 9학년까지 중등인데요. 갑자기 공부할 것도 많고 숙제가 많아졌어요. ㅏㅏ 우리반 수업은 조희가 그린 '1학기 수업 돌아보기' 만화로 소개할게요.



영끌반-중등 적응기

그림_김조희



영끌반-페인트 칠 꿀팁! _ 후배들이 잘들어라!



비가 내리고 목디스크가 걸릴테니 천장은 하지 말고... 2인1조로 한 벽씩 맡아 칠했는데, 한 명은 롤러, 한 명은 붓으로 하면 좋다. 그리고, 덧칠보단 퍼바르기 느낌으로... 덧칠된 부분은 물을 좀 묻힌 붓으로 퍼주었는데... 힘들다... 처음부터 퍼바르도록 하자~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전 내내 했다.

단, 마스크 테이프 작업은 전날에 하는 것을 추천! 그리고 제일 귀찮은 뒷정리는 쓰레기봉투를 가져다가 담고, 붓과 팔레트는 깨끗하게 빨고 말려라. 재활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사용한 롤러와 팔레트는 창고에 두었으니 참고하고, 구입한 붓 한 개는 창고에 있다. (붓은 추가 구매 필요) 큰 면은 롤러로 하고 붓으로 마무리를 해야 해서, 붓을 좀 더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팔레트에 비닐을 감싸고 하면 편리함!

할 때는 힘들었지만 막상 결과를 보니 깨끗해서 좋더라.

그럼 수고해라~ 글_ 고산



해보고 자로도 긁어보고, 손소독제로도 닦아봤지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더라. 웬만하면 벽에 양면테이프를 쓰지 말아라. 벽만 칠하는데 4L 한통을 썼는데, 모자랄까 걱정하면서 박박 긁어 썼다. 페인트 사용할 때 물을 좀 넣어주고~(페인트통에 써 있음) 바닥에 신문지도 깔아라. 그리고 천장을 하면 위에서 페인트



후배들이 잘 들어라. 페인트 꿀팁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겠다. 일단 장갑과 앞치마 등 버려도 되는 옷을 입고 와라. 그리고 창틀, 문틀 등 페인트가 묻으면 안되는 곳에 마스크 테이프를 붙여라. 창, 코드를 꼽는 곳에도 테이프를 붙여라.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양면테이프는 페인트로 덮여라. 테이프 제거제로도

영끌반에 올라와 느낀 중등 _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모습

한 해 동안 중등과 초등이 다르다는 것을 제일 많이 느꼈다. 처음 중등에 왔을 땐 '중등이란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놀 수 있었다. 걷기여행이나 청소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서 친해진 거 같다. 우리도 중등이지만, 6학년과 7~9학년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이다. 걷기여행 조에서 아무도 길요정을 안하려 할 때 윤이언니가 "아무도 없으면 내가 할게."라고 먼저 얘기해주었다. 나는 '와! 대박'이라고 느꼈다. 나였으면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책임감이 많다고 생각했다. 걷기여행을 하면서 힘들다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도와줬다. 자기 자신도 힘들텐데 나서서 도

와주고, 누가 다치면 바로바로 보러가주고... 대박이었다. 학교살이때 요리를 했는데 하나하나 알려주고 도와주고 했다. 다 같이 게임을 할 때에는 은조언니, 민세오빠가 진행도 해주고 많이 알려줬던게 고맷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면 바로바로 실행하는 것이라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게 신기했다. 우리반은 "싫어요, 안 돼요!" 이러는데 중등은 바로 한다는게 대단했다. 그리고, 중등은 영어 단어를 엄청 외우는데 그걸 그렇게 외우는 것도 신기하고, 점심시간마다 시험 보기로 영영이랑 약속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가는데 대박이라는 소리 밖에 안 났다. 나였으면 귀찮아서 가기 싫다고 난리쳤을 것이다. 그래도 2학기 말이



되니까 우리도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옛날엔 청소 안 한다고 도망가고, 숙제도 엄청 안 해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보다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중등이 되면 6학년에게 성의 있는 모습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글_ 조안나



영끌반 사회역사 프로젝트 I _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자취를 따라가 보자



5월 18일 당일 사회역사 프로젝트에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사회 역사 프로젝트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팀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유인물을 읽고 스스로 글로 정리하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4.19 탐방 때도, 5.18 탐방 때도 비가 왔는데, 아이들은 이 날의 슬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끌반 아이들의 기행문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구역 사박물관 탐방기도 실어봅니다.



산 5월 18일 광주에 갔다.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곳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과 왜 일어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번 더 기억해보고자 가게 되었다. 밥을 먹고 전남대 입구 표지석에서 '사람들을 운동장에 가둬두고 구타하고 암매장했다'는 글이 기억에 남았다. (중략) 전남도청 건물 근처에 현화하는 곳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셨다. 우리 수업 때문에 왔는데 이

것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다는게 좋다고 생각했다. 민주 묘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슬펐다. 민주 묘지를 가보니 생일 날에 죽은 사람, 어린이 날에 죽은 사람, 고등학생이 시위 중에 죽어서 명예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유명 봉안소로 이동했는데 오늘 내리는 비처럼 마음 속에 비가 쏟아졌다.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영정사진도 없다는 것이 슬펐다. 나의 소망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고 이 일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다.



민 5월 18일에 5.18 민주항쟁을 더 알기 위해 무려 4시간 차를 타고 광주에 다녀왔다. 5.18민주항쟁이 시작된 곳인 전남대 정문에 갔다가 차를 타고 금남로를 지나서 예전 전남도청에 갔다. 전남도청 근처에 있는 현화하는 곳에서 화문에 감사메시지를 적은 팻말을 꽃았다. 마음이 뭉클해졌고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리고 전일빌딩245에 갔다. 처음에는 245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총알의 흔적이 245개 었던거였다. 한 빌딩에 총알의 흔적이 245개 있다는게 너무 끔찍하고 신기했다. 10층에서 해설사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다. 군인들은 국민

들을 지키는게 의무인데 헬기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을 죽인다는게 믿기지 않고 너무 잔인한거 같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민주묘지에 갔는데 더 마음이 뭉클해졌다. 4.19 민주 묘지랑은 또 다른 기분이었다. 그중에 제일 마음에 걸린 분은 생일에 돌아가신 분이였다. 생일은 축하하는 날인데 그 날은 축하하지 못한 날인게 너무 슬펐다. 그리고 유안봉안소에 갔다. 너무 많은 사진이 있었다. 어떤 분은 엄마에게 안겨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라면 무서워서 시위 대열에 참가하지 못했을 텐데 나보다 어린 분들도 시위대열에 참가한게 감사하고 슬펐다. 총을 쏘라고 지시한 사람한테는 욕을 보내고 싶고, 5.18시위에 참가한 광주시민들에게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시킨 사람이 자백을 하고 사과를했다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광주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거 같다. 광주에 갔다오니까 5.18에 대해 더 알게 된 거 같고 좋은경험이었다.



은혁 나는 전일빌딩이랑 전남대에 있던 윤상원 열사의 명언이 제일 인상 깊었다. 왜냐면 전일빌딩은 80년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담은 건물이라서 인상 깊었다. 실



제로 헬기가 건물에 총을 쏜 자국 말고도 애니메이션, 또는 최루탄 같은 걸 전시해 놔서 5.18을 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남대에 있던 윤상원 열사의 명언 "나는 오늘 패배하지만 역사는 우리를 승리로 기억할 것이다." 이 말이 인상 깊었다 왜냐면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고 자기 미래를 본 명언 같았기 때문이다.



조희 금남로는 시위를 했던 대로인데 분홍색 5.18 현수막이 잔뜩 걸려있었다. 시위의 시작은 대학생이었는데 이후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대단한 것 같다. 나는 무서워서 시위에 참여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다. 이어 옛 전남도청에 갔는데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던 곳이다. 마지막까지 남는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대단하다고 느꼈다. (중략) 민주 묘지에 갔는데 5.18 43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있는 것 같았다. 기념탑 앞에서 꽃도 올리고 향도 피운 다음 민주묘지를 둘러봤다. 4.19때보다 묘지가 많은 것 같았다. 생각보다 어린 아이도 있었는데 안쓰러웠다. 그리고 '묘', '령'이라고 써있는 것도 있는데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었다. 유명봉안소에 가보니 4.19 민주묘지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정사진이 있었다.



태을 5.18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곳 전남대에 갔다. 입구 표지석에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암매장 되었다고 써 있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다. 군인들이 학생들을 구타하고 죽이고, 아직 회사에 가보지도 못한 학생들이 죽었다는게 너무 안타까웠다. 시간이 없어 금남로를 제대로 걷지 못한 게 아쉬웠다. 마지막까지 항쟁을 한 옛 전남도청에 갔다. 앞에서 현화를 하는데 민주주의를 마지막까지 지키려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에 울컥했다. 조금 걸으니 전일빌딩이 보였다. 빌딩 벽에 탄흔이 남아있었다. 빌딩 안에도 탄흔이 보였다. 군인은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데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쏜 건 이상하고 잘못된 일 같다. 헬기에서 총을 쏘는데 아무도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화가 났다. 무거운 마음으로 5.18 민주묘지에 갔다. 어느 묘지 비석에 '민주주의를 위해 먼저 간다'는 말이 슬퍼서 기억에 남았다. 4.19 민주묘지도 무덤이 많았는데 5.18 민주묘지도 무덤이 많이 보였다. 많은 분들의 시위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조금 내려가서 유명봉안소에 들렀다. 5.18 민주화



하은 금남로는 사람들이 연좌시위를 했던 곳이다. 금남로를 걷지 못해 아쉬웠지만 근처에서 보니 묘하게 신기했다. 그리고 전일빌딩에 갔다. 전일빌딩은 그 당시 제일 높은 건물이었고 헬기 사격을 당한 곳이었다. 10층에 245발의 탄흔 자국이 있었다. 해설사분이 군인들은 국민들을 지키는 사람인데 국민들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하셨다. 민주묘지를 둘러보고 유명봉안소에 갔다오니 기분이 묘했다. 가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갔다오니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광주에 다녀오니 '이게 맞는걸까? 꼭 이렇게 해야 했나?'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

영끌반 사회역사 프로젝트 II

_ 김구 역사 탐방

3일 6학년 태을 경교장 2층에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숙소와 김구 선생님이 서거하신 집무실이 그 당시 모습과 똑같이 복원되어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과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에게 화가 났다. 기념관을 다 보고, 김구 선생님 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용기와 마음가짐이 존경스러웠다.

해 김구의 꿈은 비극으로 끝나 버렸다...

학교 6학년 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시계와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입고 계셨던 옷이다. 시계는 윤봉길과 김구가 바꾼 것인데, 윤봉길이 자기는 곧 죽을테니 김구에게 더 비싼 시계를 가지라고 시계를 교환했다고 한다. 김구는 문화의 국가를 꿈꿨고 독립운동에 큰 힘을 실으신 분이다. 이 탐방을 통해 김구에 대해 더 알게된 것 같고 기념관과 경교장에 영상이 많아 이해가 더 잘 된 것 같다.

민찬 경교장 2층에 김구 선생님이 총살당한 자리와 창문이 뚫려 있는 총알자국이 디테일하게 나와있었다.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걸 보니 할머니가 생각나서 울컥했다. 오늘은 김구 선생님의 업적과 죽음,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동하 김구 선생님께서 살아 생전 사용하셨던 물건들이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엔 윤봉길 의사와 바꾸었다는 시계도 전시되어 있었다. 시계 일화는 여러번 들어봤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분이었다. 김구 선생님이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던 이 나라를 김구 선생님의 소망대로 진정한 '문화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 같다.

은혁 경교장에 짧은 영상에서 김구가 안두희에게 암살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뒤를 보니 유리창에 총알자국이 있어 실감이 났다. 기념관에는 김구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이 있었는데 진짜 피라하니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통일 정부를 위해 노력했는데 미군 방첩대 요원 안두희 소위가 흉탄을 발사



조희 김구는 힘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남북 통일, 자주 독립정부를 세우고 38선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하신 김구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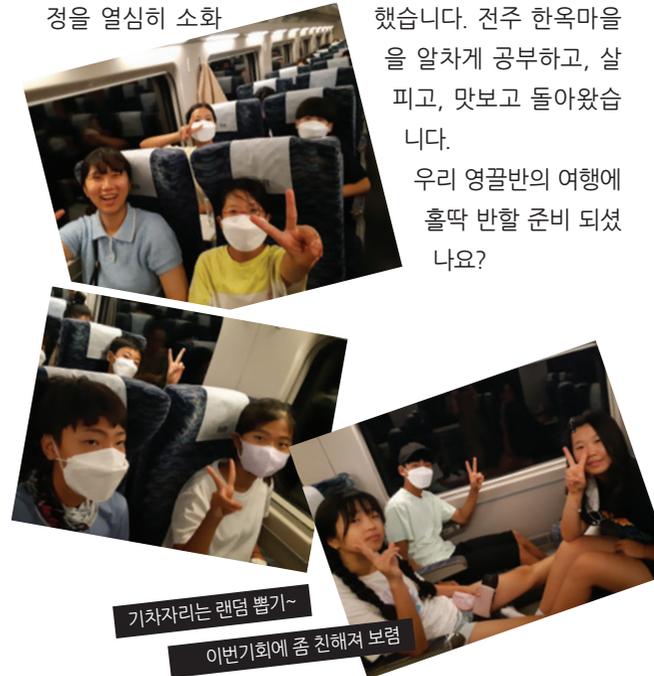
인희 김구는 그저 통일된 조국을 위한 것 뿐인데 편히 돌아가시지 못한 게 너무 슬펐다. 김구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다.

영끌반의 들살이 _ 직접 기획하고 책임지는 여행

중 등의 여행은 초등때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직접 기획하고 책임집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마음들을 조율하고,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 있게 준비해 갑니다. 그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배움의 가치를 조금씩 체화해 가는 것이겠지요.

9월 6일~8일 전주로 반살이, 들살이를 다녀왔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본향인 전주를 들살이 장소를 선정하고, 경기전, 전주사고, 전동성당, 전주 향교 등에 대해 2주에 걸쳐 먼저 공부했습니다. 방문해야 할 곳과 전주 대표 음식 등을 검색하고 개별로 혹은 팀별로 전주 여행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숙소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는 충분한지, 금액은 얼마인지 담당자와 직접 통화도 하고 준비물까지 모두 직접 정하고 회의를 통해 딱딱한 2박3일의 일정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무더운 날씨에서도 계획한 일정을 열심히 소화

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알차게 공부하고, 살피고,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끌반의 여행에 훌쩍 반할 준비 되셨나요?



기차차리는 랜덤 뽀기~

이번기회에 좀 친해져 보렴

들살이 일정

첫째날! SRTE고 전주로 고고!

- ▶ 숙소에서 도시락 먹고, 한복 입고 경기전으로 이동
- ▶ 경기전(전주사고, 태조 어진 구경 및 경기전 돌아보기), 한복은 더워요!
- ▶ 저녁은 베테랑 칼국수 골맛!
- ▶ 칼국수 먹고, 밤산책 담당 태율이 리드로 전주천 고고!
- ▶ 풍남문 밤산책
- ▶ 하루 마무리 후 글쓰기

둘째날! 일찍 서둘러! 다시 하루 시작!

- ▶ 모닝 자전거 타고 전주천으로... 한벽굴에서 야호, 한벽당서 경치 감상하고
- ▶ 다음은 바로 '레일바이크!' 더 달려!!
- ▶ 점심은 비빔밥! 전주는 역시 비빔밥이지!!
- ▶ 한국 최초 순교터,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이 어울어진 전동성당 둘러보기
- ▶ 전주 난장 돌고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
- ▶ 저녁은 공나물 국밥! 공나물 국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 ▶ 이렇게 잠들기 너무 아쉽다... 그렇다면!
- ▶ 하루 마무리 후 글쓰기!... 그리고 기절!

셋째날! 집으로~~~

- ▶ 청소는 제대로! 수지공학교 영끌반 흔적 없이 쓱쓱~
- ▶ 고속버스 타고 집으로 고고! 타자마자 '레드썸!'

영끌반 들살이 솔직 후기 _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혀! 너무 덥습니다!
기우제를 지내 비를 뿌려 주시옵소서!!!!



개빡센일도 마음을 다스리며 해봐
그러면 곧 행복한 일이 생겨



Super T의 소감문 일부

9/6~9/8까지 들살이를 다녀왔다. 이번엔 우리가 다~~ 짜고 갔다. 준비과정엔 개빡센 필기 공부와 조사, 길 외우기까지 이걸 그냥 씬이 공부 시키려고 전주를 고른 것 같았다. 숙소에 가는 길은 매우 힘들었다. 더운데 어깨가 부러질 것 같았다. 그건 다 사과 때문이다. 씬이 식량을 가방에 넣으라고 해서다. 어쨌거나 밖으로 나와서 경기전으로 출발했다. 내가 가이드(?)였는데, 한번에 도착했다. (역시 naya) 경기전에서 이성계 어진 복제본을 보고 우리 착한 사고친구(전주사고)를 보았다. 그리고 사진을 찍다가 애들이 더워서 차마를 걸어 올리고 있었다. 모든 애들이 이렇게 될 징조가 보이자 한복을 벗으러 출발했다.

F의 소감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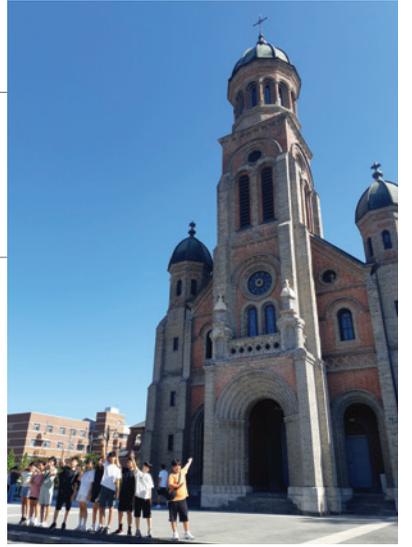
전주로 들살이를 가기로 했다. 일정을 우리끼리 짜는 거라 색달라서 재밌기도 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다. 그래도 모두가 원했던 일정이어서 기대가 되었다. 혼자서 첫날 밤산책을 맡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밥을 다 먹고 밤산책을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밝아서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바로 밤산책을 가지 않고 전주천에서 놀다가 근처에 있는 청연루에 가서 쉬었다. 청연루에서 보는 노을이 무척 예뻐다. 해가 빨리 저버려서 아쉬웠지만 드디어 준비한 밤산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밤산책 첫 번째 코스는 전동성당이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웠고 내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에는 소녀상도 보고 준비한 풍남문도 구경했다. 사진보다 실제로 보는게 더 멋진 것 같다. 그렇게 밤산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갔다.

글쓰기에 재미 붙인 T라고 우기는 F의 소감문 일부

다음 날, 향교 대외소에 가서 자전거를 빌렸다. 빌리러 가는데 온갖 걱정이 다 들었다. '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뒤에서 치면?' 이런 걱정이 들긴 했지만, 몸이 기억한다면서 다들 잘 탔던 거 같다. 풍경을 보면서 가는데 너무 좋았다. 바람도 불고, 날씨도 좋고 지나가시는 분들께 인사까지 하니깐 기분이 좋았다. 숙소로 가서 쉬다가 자전거를 반납하러 가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팠다. 영영쌤 말로는 5시간을 탔다고 했다. 탈 때는 몰랐는데 5시간을 탔다니 내 다리가 놀라웠다. 마지막날 숙소 청소를 싹하고 고속버스를 타러 가는데 '이제 마지막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쉬웠다. 가을 들살이는 덥고 엉덩이가 아팠지만,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김 _ 여기까지와서 하마무라니!!
조 _ 어차피 해야해! 알른하고 놀자!!



번외편 : 1년동안 글쓰기에 지쳤던 대문자 I의 인터뷰

일년동안 기행문과 각종 글쓰기에 힘들었다 하던데.. 영끌반 소식지를 보니 어떤가?
힘들었지만 이렇게 보니 괜찮은데요? 글쓰기가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지나고 나니 별거 아니네요.
곧 6학년이 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
힘들어도 참고 해라!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영끌반 친구들에 한마디...
6년의 시간을 함께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 각자 다른 곳에서도 잘 지내자. 연락하자.
영영쌤께 하고 싶은 말은?
1년동안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영영쌤께 다른 할말은?
이걸 이야기 하라는 건가?
사.....사.....광.....했.....

8910반 (7,8,9학년) _ 양다

함께한 시간만큼 단합은 최고



수지꿈학교 소개하기

정우 학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이 많다. 프로젝트 수업같은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이 많다.

성민 행복한 자유인이 목표인 학교인 만큼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할 수 있고 학교가 산에 있어 매우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석현 학교가 갠성있고 예쁘고 자연이 둘러싸여 있어 곤충 친구들도 많다. 그래서 곤충 친구들에게 면역을 생긴다. 그리고 산이 바로 있어 상큼한 공기가 지금 된다.

윤 일단 급식이 건강하고 쌤들이 학생에게 집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 수업 외에 다양한 수업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 친화적이에요. 애들도 착하고 수업도 재미있는 수지꿈학교로 오세요.

루빈 언덕 위에서 보는 풍경이 좋고 광합성도 가능해서 좋다. 계속 나다녀야 해서 은근슬쩍 체력훈련 가능한 것 같다. 재미있는 수업도 많다.



은조 학교가 정말 아름다워요. 학교에 올 때 오르막길을 올라야 해서 운동이 돼요. 여행도 많이 가고 계곡도 많이 가서 즐거웠어요. 걷기여행 가면 정말 튼튼해져서 좋아요. 그리고 일학년 애들이 귀여워요.

승현 학생들이 적어서 정신 사납지 않고 산이 바로 뒤에 있어서 공기가 맑고 산행도 할 수 있다.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해서 좋고 프로젝트 시간에 무엇을 만들거나 경험하는 수업이어서 싫으면서도 좋다.

영준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지우 산속에 있어서 공기가 맑다.

민세 아이들끼리 두루두루 친하다. 학생들끼리 누군가를 따돌리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학생들을 좋아하고 항상 부지런하시다.



8910반의 장점

승현 개인적인 활동보다 같이하는 활동들을 다들 열심히 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개성이 뚜렷해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무엇을 정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

석현 친구들이 재밌고 공부를 잘해서 천재가 되었다. 반은 포근하고 아늑해서 마치 집같다. 언제나 편하게 있을 수 있다. 시원하고 따뜻하다.

지우 두루두루 친하다. 사람들이 재밌다. 수업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

정우 애들이 다들 전체적으로 활발하고 활기차서 반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 다들 서로서로 친해서 편하다.

성민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인간들이어서 서로서로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일부 수업을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희주 반 내의 불화가 많지 않고 서로 장난도 치면서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낸다. 그리고 반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이 있다.

영준 애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친하다. 각자 자신만의 재주가 있다.

윤 언제나 시끄럽고 화목하고 웃기다. 애들이 착하다. 1학년 때부터 같이 지낸 사이라 가족같고,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 이야깃거리가 많다. 가끔 투닥거리지만 그만큼 단합력도 좋다.

김루빈 분위기가 좋고, 다같이 많이 웃는다. 서로 친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더 친절하고 가끔 단합력도 좋다.

은조 애들이 정말 즐겁게 놀고 힘이 넘쳐서 반이 정말 화목하다. 반 애들이 일을 잘해서 일꾼으로 쓰기가 좋다. 운동도 좋아해서 발야구 같은 것들도 잘한다. 모든 애들이 친하기 때문에 정말 즐겁다.



민세 반 아이들끼리 서로를 너무 아끼고 보듬어 준다. 아무래도 중등반이다 보니 다들 이 학교를 다닌지 오래돼서 그 기간에서 오는 유대감과 각종 학교생활 노하우가 반을 가득 메운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8910 전시 프로젝트 _ 청소년이 청소년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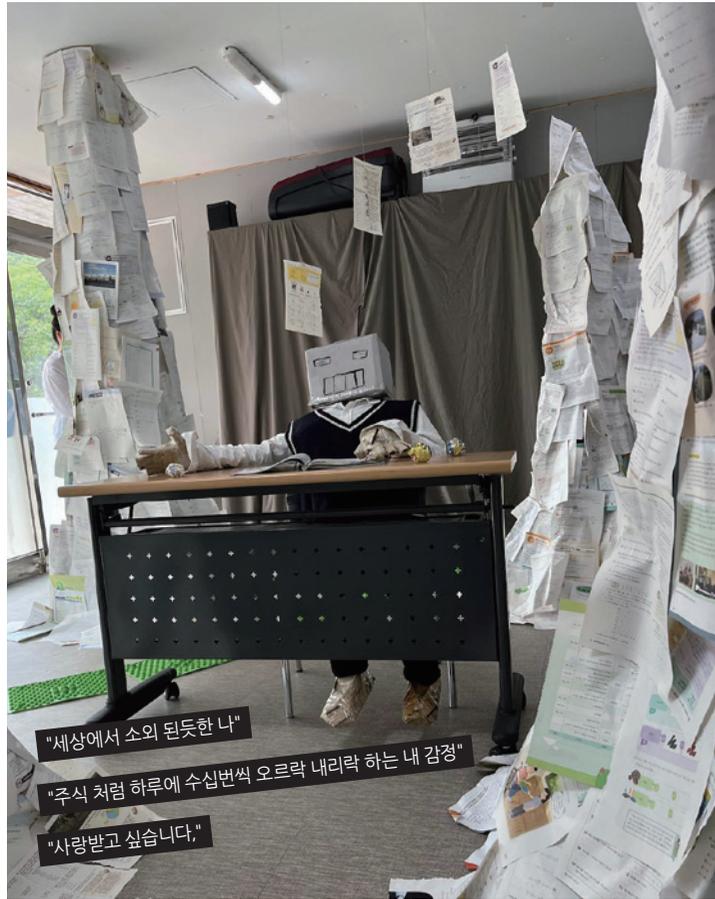


전시도록 & 영상

인터뷰 _ 홍보팀(김석현, 이정우)

전시총감독 _ (김윤, 이성민)

수지꿈에서 놓칠 수 없는 이벤트, 중등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스스로 준비한 전시여서 더욱 감동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말하는 청소년 이야기. 그 진한 울림을 전달해 드립니다.



성공을 향해(지압판 길)

이 작품은 청소년들이 흔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나 힘든 것들을 느끼게 하기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

오르고 올라도(학습지탑)

그림책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그 책 속에서 애벌레 탐이 나오는데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길 원해 오로지 정상을 향해 다른 애벌레들을 해치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런 애벌레 탐을 모티브로 대한민국 청소년의 실상을 담아 만든 문제집 탑이 바로 오르고 올라도입니다.

공부하는 로봇

이 작품은 결국 공부만을 하던 청소년들이 이제는 공부에게 지배당해 감정도 표정도 없는 그저 공부만을 하는 로봇이 된다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시 주제를 청소년 삶의 실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윤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 우울한 청소년들이 있고 그로 인해 심지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감춰져

있었지만 요즘에는 수면 위로 떠올라 심각한 문제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언론 방송 등에서는 정보만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희는 청소년의 진짜 마음을 알리려 전시를 계획했습니다.

성민 우리나라에 청소년들이 놓인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여겨서입니다.

전시에 여러 팀이 있었는데 어느 팀이 있고 각 팀은 무슨 일을 했나요?

김윤 큐레이팅 팀, 제작팀, 홍보팀 이렇게 세 팀이 있었는데요. 큐레이팅 팀은 전시의 총 메시지, 분위기, 그리고 색깔 등을 정하는 역할을 했고 제작팀은 작품들을 구상하고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팀은 전시를 알리기 위해 영상, 플랫폼,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전시 내용 중 하나였던 능력주의가 청소년들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김윤 능력주의는 말 그대로 능력이 있으면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사회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성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공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학업 스트레스와 연결되죠.

성민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과 진행 중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김윤 전시를 거의 한 달 반 정도 안



에 준비해야 해서 좀 촉박했어요. 그래서 빨리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전시를 하면서 느낀 감정들이 다 각자 있었어요. 이제 그 감정들로 인해서 약간 예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민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전시에 임했습니다. 전시 물건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주말에도 더 열심히 나와서 일했습니다.

진행 당시에 타 학교 청소년들을 인터뷰이로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김윤 저희 반 학생들이 모두가 청소년이긴 하지만 청소년이 우리 학교에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학교를 다니는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성민 일반학교 학생들은 저희랑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를 것 같아서 외부에 있는 청소년들은 인터뷰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무엇이고 왜 그런가요?

김윤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은 오르고 올라도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애벌레 탐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청소년들이 서로를 경계하고 질투하며 위로 올라가지만 그 위에는 허무함만 남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습지타워이고요. 이유는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고 노력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전시 마친 소감 한마디?

김윤 우선 준비할 때부터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진행을 하니 친구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주어서 걱정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완전히 모르는 분들도 꽤 오셨어서 뿌듯했습니다!

성민 할 일을 끝냈다는 것에 성취감이 느껴졌고 만족했습니다. 정리하면서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또 하고 싶습니다.

8910반 졸업여행을 준비하다

해도두리 장터 준비 과정

졸업여행 기금 마련을 위해 해도두리 장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판매할 제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학교 수업을 통해 배웠던 품목들 중 비누, 수세미, 에코백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팀은 목표 개수를 정하고, 팀원을 정했습니다. 비누팀은 윤, 민세, 정우, 영준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합이 잘 맞아 빠르게 목표 개수를 달성했습니다. 별관에서는 비누 제작 과정에서 나는 화장품 냄새가 퍼졌습니다. 팀원들은 손가락을 휘저으며 틀에 비누를 부었고, 비누베이스 재료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제작을 계속해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세미 팀은 루빈, 지우, 석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루빈이는 뜨개질을 워낙 잘 했고 지우와 석현이도 금새 코바느질에 능숙해져서 수월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후반부에 디자인 변경과 머리끈 제작 주문이 들어오면서 작업 방법을 바꿔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즐겁게 작업하였습니다. 수세미 팀의 작업장 밑에는 언제나 반짝이는 실들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도두리 장터 수익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한 과정

해도두리 장터를 통해 모은 돈을 내년 졸업 여행을 갈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각 학년별로 의미와 이유를 중심으로 금액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7학년 학생들은 대만여행에서 비용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5만원을 기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8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하는 곳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20만원을 기부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9학년 학생들, 이번 여행의 주인공들은 여행에서 한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총수익에서 빼고 나머지를 기부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학년이 의견을 낸 후에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결과 2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여행에서 2명의 학생이 불참하게 되어 항공권과 숙소의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 이미 모아둔 수익금에서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은 학생들 간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도두리 장터에서 약 50만원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민세의 피부염과 정우의 다리 부상으로 두 명이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도두리에서 번 50만 원 중 30만 원을 민세와 정우의 비행기 티켓 환불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8910반 2023년 대만 졸업여행 준비 과정

졸업생은 은조와 민세였고, 그들 말고는 9학년 학생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만 졸업여행을 가야 하지만,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만이 여행을 가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8910반이 모두 함께 졸업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졸업여행 참가자를 정한 다음 단계는 여행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여행을 제안한 사람들과 해외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졸업생 두 명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논의 끝에 해외로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여행지 후보로는 베트남, 대만, 홍콩, 일본 등이 있었지만,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결정된 여행지는 대만이었습니다. 순조로운 졸업여행 준비를 위해 세 개의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일정팀, 교통팀, 식당팀입니다. 일정팀은 첫 일정을 짰지만, 타이베이 시내만 돌아다니는 느슨한 일정이었습니다. 결국, 일정팀은 두 번째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행 준비 중 식당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팀장과 팀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8910반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다 선생님은 좋은 리더와 팀원

모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팀원들과 소통해야 하며, 팀원들은 리더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하며 리더를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각 팀의 팀장과 팀원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약을 챙기고 규칙을 정립한 후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8910반 드디어 떠난 졸업여행 _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선사한 값진 시간

대만 여행에서 있었던 일

대만에 도착한 첫날, 해외에 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숙소 주변 거리는 부산을 연상시켰고, 웅크져 같은 변화가는 마치 서울의 명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로 쓰인 간판과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비로소 해외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에 대만어와 중국어를 조금 공부해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영어와 대만어를 섞어 사용하며 외국인과 소통하는 경험은 매우 뿌듯했습니다.

첫날 점심 숙소 근처 식당을 방문했을 때,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지만, 바디 랭귀지와 눈치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성공해 신기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온천을 방문해 현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온천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이러한 따뜻한 호의는 대만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대만은 조용하고 편리하며 친절한 나라였습니다. 교통은 버스와 지하철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변화가도 서울만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만을 떠나기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가 그리워 한국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선사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여행지에서 쓴 졸업을 앞 둔 소감

졸업여행에 왔음에도 졸업을 실감나지 않고 마치 겨울 들살이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졸업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을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지꿈학교를 떠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아 두렵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학교에서 보냈기에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지꿈학생으로 남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 선생님들, 수업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합니다.

수지꿈학교의 선생님들은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년 만난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기억과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추억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화목한 학교생활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지금과 같이 잘 지낼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제 제 2의 가족인 수지꿈학교를 떠나 독립할 시간입니다. 모두 안녕히 계시기 바라며, 자주 놀러 올게요.

역시 스케일이 다른 최고학년 반이었다! 이렇게 멋진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부럽지만 하다. 여독이 풀리기도 전 글을 내 놓으라는 독촉에도 흔쾌히 써준 8910반 친구들과 양다쌤께 무한 감사 드립니다!

감사!



8910반 졸업생 은조, 민세 인터뷰 _ 9년을 짊어 채웠어!

9학년 인터뷰 미션을 받아주고 해원(5학년)과 나는 조금 신이 났다. 중등에 대한 궁금증은 많았지만 평소에 그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는 적었기 때문이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9학년 친구들을 따스했던 11월의 어느 날 학교에서 만났다. 진행 _ 박해원 / 사진·정리 _ 와디



인터뷰 당시 9학년은 졸업여행을 앞두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여행에 대한 질문부터 던졌다.

은조(이하 은)_ 조금 떨리고... 준비는 어느 정도 됐어. 대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돼.

민세(이하 민)_ 교통수단이나 도보 경로까지 하나하나 직접 준비했거든.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들어가 있어.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하진 못하지만 친구들이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

어느덧 훌쩍 자라 졸업여행을 준비하는 은조와 민세. 이 친구들은 입학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은_ 입학식은 오래 전이라 잘 기억나지 않아. 그냥 '학교에 입학하는구

나'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 민_ 나도 기억이 희미하긴 해. 형과 누나들, 선생님들이 우리 앞에서 축하해 주셔서 얼떨떨했어.

꿈증서에 적힌 꿈은 뭐였어?

은_ 여러 가지를 적어 넣었어.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요리사, 아이돌. 민_ 분명히 썼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참에 집에서 찾아봐야겠다.

어느 선생님과 1학년 생활을 시작했어?

은_ 빙그레 선생님과 아지트반에서 생활했지.

민_ 1학년 때는 매일매일 즐거웠어. 학교(영구 터전 이전의 학교를 말함) 안에 있는 시간 못지않게 점심시간이 되면 뒷산에 많이 올라갔거든. 등

산로도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놀았어.

현재의 영구 터전으로는 언제 이사했고 이전 학교를 떠나는 마음은 어땠어?

은_ 2020년, 우리가 6학년 되던 때. 1학년부터 다녀서 그곳에 애정이 많았어. 학교에 대한 추억들이 다 좋았고 뒷산에 대한 추억도 많아서 아쉬웠어.

민_ 5년 동안 꾸준히 생활한 건물을 옮긴다니가 감회가 새롭고 아쉬웠어.

아름답게 지어올린 새 건물로 이사한다고 했을 때 마냥 기뻐했을 거란 예상과 달리 이전 학교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적지않이 놀랐다. 차곡차곡 쌓인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들!

초등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어?

은_ 나는 공부를 안 했거든. 수학 시간에 맨날 딴짓하던 게 기억나. 뒷산 올라가서 아지트 만들고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몰래 간식도 먹었어.

민_ 1학년 때는 쉬는 시간이 많았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주웠던 것

8910반 졸업생 은조, 민세 인터뷰



요랬는데~~

이 가장 기억에 남아. 초등 시절, 중등 선배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은_ 엄청 어른 같았지. 힘도 세 보였어. 내가 과연 저

렇게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9학년이 되고 보니 언니, 오빠들도 결국은 그냥 '중학생'이었구나 싶더라고, 하하. 중학생에 대한 환상이나 이상적인 모습이 깨졌지. 민_ 초등 때는 학교에서 보내는 1년의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거든. 그런데 중등에 올라오니 하루, 한 달, 일년이 더 길게 느껴졌어. 중등과정만의 특별한 수업이 있어? 은_ <삶과 철학>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성장해야 할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 초등생이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조금 높아. 민_ 프로젝트 수업. 초등 때도 프로젝트 수업을 하지만 확실히 중등의 수업은 수준과 깊이가 다르더라.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과목은 뭐야? 은_ 영어수업. 요즘 들어 재미있어. 민_ 중 2 때 했던 역사와 사회수업이 재미있었어. 중등 과정을 이수하면서 성취한 것이 있다면? 은_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을 조금 더 또렷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것을 토대로 자존감을 올릴 수 있었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개념도 잡을 수 있었어. 민_ 초등시절보다 내면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의젓해진 것 같아. 방과 후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해? 은_ 공부방과 논술학원을 다니고 있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집에서 놀기도 하지. 민_ 나도 학원에 가거나 외출을 하기도 해. 초등 시절과 크게 달라진 않았지만 여가시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 학년이 올라갈수록 꿈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생긴다. 그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은_ 외롭지. 동갑 친구들이 5학년까지 12명이었는데 결국 10명이 나간

거니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긴 해. 그런데 동생들이 있어서 엄청 외롭진 않아. 민_ 솔직히 아쉽긴 했어.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라고 응원해 줬어. 우리 학교에서 중등의 진학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중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어. 누나와 형은 왜 이곳에 남는 것을 선택했어? 은_ 다른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학교 중등 과정을 선택했어. 민_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래서 갑자기 친구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조금 당황했었지. 나는 수지꿈학교가 만족스러워서 중등에 진학했어.



요래 뵈었습니다~~!!

수지꿈에서 즐겁고 알차게 초등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중등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찾아온다. 본격적으로 중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초등과 중등 과정의 차이점은 뭐까? 은_ 초등은 확실히 자유로웠어. 놀고 싶으면 놀고 탄짓을 좀 해도 그렇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중등이 되니까 교과 시간에 딱 맞춰서 가야 하고... 새롭기도 했어. 하지만 탄짓도 하고 싶었지. 민_ 초등 때는 학교에서 보내는 1년의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거든. 그런데 중등에 올라오니 하루, 한 달, 일년이 더 길게 느껴졌어. 중등과정만의 특별한 수업이 있어? 은_ <삶과 철학>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성장해야 할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 초등생이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조금 높아. 민_ 프로젝트 수업. 초등 때도 프로젝트 수업을 하지만 확실히 중등의 수업은 수준과 깊이가 다르더라.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과목은 뭐야? 은_ 영어수업. 요즘 들어 재미있어. 민_ 중 2 때 했던 역사와 사회수업이 재미있었어. 중등 과정을 이수하면서 성취한 것이 있다면? 은_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서 크게 마음 쓰지 않아. 곧 낯선 곳으로 떠난다. 마음이 어때? 은_ 오래 지내온 학교라 떠나기 싫어. 다른 학교를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과 흥미가 교차하는 것 같아. 민_ 9년 동안 다닌 학교를 졸업하게 되니 아쉽긴 한데, 신선한 자극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새 학교를 다니려고 해. 꿈학교를 떠나면 가장 그리워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 은_ 친구들과 선생님. 이 학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모두가 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리울 것 같아. 민_ 당연히 친구들과 선생님이 그리울 거야.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초등 시절 조금 더 진취적인 태도를 가졌더라면 좋았겠다 싶어. 졸업까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내게 될 것 같아? 은_ 프로젝트 마무리해야 하고, 동아리 활동도 계속할 거야. (은조는 수지꿈 중등 친구들과 밴드 동아리를 하고 있으며 일렉과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다.) 민_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고등학교 갈 준비하면서 꿈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추억하며 지낼 것 같아.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답변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든든함까지 느껴진달까.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꿈학교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은_ 우리 학교 너무 재미있으니까 들어오거라. 민_ 생활해 보지 않아서 많이 낯설겠지만 신입생 모두 우리 학교에 도전해 줬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곳이란단. 9년을 함께 한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은_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지? 매년 만나는 선생님들이 나의 내면을 성장시켜주셨던 것 같아. 너무 고맙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해. 민_ 담임선생님은 물론 여러 다른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께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선생님들께 배운 것은 졸업해도 잊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강히 잘 계시길 바랄뿐이야.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유를 즐기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두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종료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9년의 학교생활을 통해 행복한 자유인이 되었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시에 나온 대답은 바로, "네!". 앞으로 두 친구들이 만들어 나갈 세계를 응원한다.

중등 걷기여행, 학교살이 둘러보기 이것이 형님들의 여행이다!

중등에 가면 여행계획, 길찾기, 예산짜기 등 모두가 아이들 몫이다. 설레임의 시간을 가지며 조사하여 떠나는 아이들의 여행은 어땠는지 살펴보자. 글_수지꿈 중등친구들, 정리_올챙이

걷기여행

바닷길, 산길, 들길, 마을 길, 시내 다양한 곳을 한 줄 서기로 때로는 무리지어 4박5일, 강화나들길90km 낙오없이 잘 마쳤다. 비가 살살 내리는 날도 있었고, 바람이 불어 추운 날도 있었고, 햇빛이 좋은 날도 있었다. 비가 오고 추울 때는 우비를 입고 걸어서 알록달록 예뻐고, 길요정들은 바쁘게 길을 찾아 뛰어다녔다. 매년 1학기 걷기여행에 참여해온 8~9학년 형님들은 이미 베테랑! 걷기도, 요리도, 청소도, 페이스메이커도 완벽! 처음 참여한 6학년 신참은 선배들의 다정한 손길을 받으며 첫 걷기 여행을 힘들지만 따스하게 완주했다.



4박 5일 90km
장소 _ 강화나들길
제1일11코스 14km
제2일 19코스+숙소 22km
제3일 5코스17km
제4일 17-18코스 23km

수지꿈학교 중등 걷기여행 용어사전

길요정 선두에 서서 코스에 따라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 단, 길은 사전에 숙지해 오기! 부해서 지도로 그려 오기도 하고, 노트에 빠곡하게 적어오기도 하고... 전자기기 도움없이 고고! 길요정이 실수하면 전체가 더 걸을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 길요정은 제일 앞에서 애가 탑니다!
페이스메이커 걷기 힘든 사람 손! 뒤로 처지면 더 힘들어지니까... 페이스메이커들이 앞쪽에서 힘든 친구와 짝공을 맺고 으쌰으쌰! 끌어주고, 밀어주고, 잔소리도 해주고! 어색한 사이일수록 효과는 짱!

1학기 동안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걷기여행이었다. 작년과 올해 걷기여행은 차이점이 많았다. 중등으로 올라오면서 2박3일이 4박5일이 되었고 걷는 양도 많아졌다.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우리가 길을 알아서 찾아가야 하고, 요리도 우리가 다 해야 했다. 그래도 난 이번 걷기여행이 더 재밌었다. 힘든 일을 할수록 뿌듯함도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감이 큰 일은 처음인 것 같다. 20명이 넘는 사람을 이끈 것이 너무 뿌듯했다.

후기를 좀 알려주자면, 첫날은 발바닥이 겁나 아프고 힘들다. 2일차는 좀 덜 힘들다. 그리고 3일차는 2일차보다 덜 힘들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정도가 된다. 4일차는 3일차보다 덜 힘들어지고 내일 집에 간다는 생각에 신나 있다. 그리고 5일차는 친구들처럼 계속 수다만 떨다가 집에 간다.

4월, 처음으로 중등 걷기여행을 가봤다. 중등 걷기여행에 비해서 초등 걷기여행은 그냥 훈련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원래 코스 길이는 11km이고 숙소까지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20km가 안 되는 거리인데 나 때문에 26km나 걸었다. 걷기여행은 힘들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선배들한테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2일차! 시작~~
지금은 웃음기 있는 얼굴이지만.....

경험자가 알려주는 걷기여행 TIP!
편한 운동화 필수!!! 가벼운 물통 2개 필수!!!! 작은 가방 필수!!! 힘들 것 같은 사람은 미리 체력 키워주기! 가방에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기!!(인형, 책, 아이들 굿즈, 엄마, 아빠 넣지 않기!!)



비가와도 우리는 걷는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틈만나면 앉아!! 일단 쉬자쉬자!!
여경쌤은 무슨이야기를 하실지 궁금~



3일차 힘들어요~
카메라 쳐다볼 힘도 없어요



마지막 밤!! 바베큐파티~
고기가 들어가니 카메라도 보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할듯~~ 수고했다!!!

중등 학교살이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학교라는 공간에는 저마다의 기억이 스며들어 반짝임을 남긴다. 그 곳에서의 1박 2일. 이번 학교살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스며들었을까.

비 어제부터 계속 **비** 가 왔네요. 지난 해에는 학교가 떠나려갈까 걱정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바꿨던 발야구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비 오는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일정을 이야기하고 약속을 정하고, 발야구 예정이었던 10시부터 12시까지 다 함께 자유롭게 놀기로 했습니다. 은조의 진행으로 자유놀이 시간이 펼쳐집니다. 마피아를 할까, 피구를 할까, 아이엠그라운드를 할까 투표를 하더니 바로 네 개 팀으로 나눠 피구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땀을 흘리고는 수건돌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등 아이들이 동그렇게 앉아 수건돌리기라니. 한 덩치 하

는 아이들의 우듬지터에서의 피구는 살짝 겁도 납니다. 조별로 도시락을 먹으러 각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는 저녁에 있을 사자성어 퀴즈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페이지씩 외우는 조도 있고 무작정 외우는 조도 있고 제법 진지했습니다.



다 같이 나눠 먹고, 뒷정리 하고 바로 시작된 밤참 라면배 사자성어/속담 OX 퀴즈. 답을 알고 서는 건지,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는 건지, 조별로 나눠 서고, 그냥 찍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끈질긴 눈치게임이 즐거웠습니다. 사자성어 동작 퀴즈는 신박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살짝 참담했습니다. 사자성어 게임의 하이라이트, 여경샘이 힌트주고 아이들이 맞추는 게임까지 즐겁게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살이 소감을 나누고 공식적인 학교살이 첫날 일정은 끝났습니다. 가서 자도 된다고 했지만, 잘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후식으로 밤참 라면까지 야무지게 끓여 먹고나니 바로 잘 시간이라고 입이 나와 있지만 침낭을 펴고 잘 준비를 하네요. 일정표에 맞춰 싹 잠이 들고, 일정표보다 훨씬 일찍부터 일어나 보드게임을 하네요. 오늘 집에서 모두 꿀잠을 잘 것 같아요.

싸우거나 맘상하거나 따로 노는 사람 없이 서로서로 잘 챙기며 잘 놀았습니다. 이렇게 2023년 학교살이 첫날이 끝나고 둘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저녁 메뉴 삼계탕 덕분에 아침 메뉴에 닭죽이 추가되었습니다! 친절하고 자상한 엄마만 가능하다는 닭살 바르기 신공을 영준이가 보여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고마워~ 영준아~~~ 비가 와도 해가 떠도 날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내년에는 바깥에서 더 씩나고 싶어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수지꿈 옹기종기 미니운동회

2023년 운동회의 운명이었을까? 이리저리 일기예보에 옹기종기 치러진 미니 운동회. 글 _ 제인



바야흐로 운동회 시즌이 돌아왔다. 친목 도모라는 부차적인 목적을 두고 1학기 때 운동회를 열어 볼 요량으로 일꾼들은 진즉에 여러 회의를 거쳤었다. 하지만 강우 예보가 있고 운동회는 자고로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해야 제맛이라며 2학기 미뤘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운명이었던가! 2학기 일정에 어렵사리 끼워 넣은 운동회 날에도 비는 내리고야 말았다. 매일 시시각각 바뀌는 예보에 이렇까, 저렇까 중횡무진 운영위원들의 고민들이 있었지만 결국 전날 모든 계획을 수정 및 축소하기로 했다. 수지꿈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한마당을 즐기고 싶었던 마음, 각본 없는 드라마를 기대했던 마음도 모두 축소되었다. 아쉬움이 컸지만 기실 학교에서 운동회가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더 들었다. 모든 식구들이 즐기기에 학교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아이들도 왠지 흥이 덜 나지 않을까 했다.



그 누구보다 진지하다!! 마음만은 호날두~~!! 그중 제일 진지한 사람 - 여경샘 ~)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가득한 날, 햇살 담은 에이든샘의 미소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하늘놀이터에서 축구를 시작으로 운동회의 막은 열렸다. 공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저학년 선수단은 같은 팀 친구들의 힘찬 응원소리에 마음만은 호날두 못지않아 보였다.



응원은 우리 똘!! 파이팅~!!



저학년 경기가 끝나고 고학년 차례. 오, 역시! 사람을 들었다 놔다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슈퍼스타 콘서트에 온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호응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흠뿌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경기에 임하는 아이들의 열정과 응원의 소리는 학교를 넘어 뻗어갔다. 운동회 취소했으면 어쩔 뻔!

다음은 우듬지터로 넘어가 피구와 줄다리를 할 차례. 전교생이 들어가니 우듬지터가 바글바글 가득 찼다. 여기서 경기를 제대로 하겠나 했는데, 했다! 매 경기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앞서 가지고 있었던 걱정들은 모두 기우였다.

다시 땅놀이터로 나와 운동회의 꽃, 박 터트리기를 준비했다. 작년 운동회 때 예상치 못한 박의 견고함에 애를 먹었던 터라 이번에 만들 땐 대충 만들자 하며 일꾼들이 만든 박이었다. 서로 상대방 팀 박을 만들며 결눈질로 경계했던 건 안 비밀.

박을 마땅히 설치할 곳이 없어 위층에서 매달아 떨어뜨렸는데 박들은 날아오는 오재미를 요리조리 피하듯 빙글빙글 돌아가며 약을 올렸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지켜갈 때쯤 작년처럼 박에 칼집을 내어 터지게 만들었다. 새삼 즐겁게 끝낼 수 있는, 적당한 시점에 잘 터지는 박 만드는 일을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구나 싶었다.

다음은 부모님들의 기부 물품으로 주어지는 각종 상품 수여식. 이번에는 아이들이 직접 상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더 흥미진진했다. 왜 자기가 불리지도 모르고 나오기도 했지만 상품을 고를 때는 꽤나 진지했고 그 와중에 부모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고르는 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아이, 제일 값싸 보이는 걸 고르는 아이 등등 짧은 시간에 나름의 짱구를 굴려가며 상품들을 받아 갔다.

상품 증정식이 끝나고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사인들이 오고 갔고, 산이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예비신부 지나쌈을 위한 축하공연이었다. 어디 내놓을 만한 실력은 아니었지만 지나쌈은 심히 감동받으셨는지 그 노래를 듣고도 눈물을 보이셨다. 하긴 산이의 노래가 아니었으면 김빠진 서프라이즈가 되었을 거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 해 주신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자타 공인 수지꿈의 유재석 여경쌤께서 능숙하게 이끌어주신 미니운동회는 이렇게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 일에는 도통 관심 없는 칼스가 1등을 했다. 함박웃음과 함께 두 손을 번쩍 들며 승리를 자축했다. 10여 년의 결혼 기간 동안 볼 수 없었던 함박웃음이 다. 결혼생활이 많이 힘들었나 싶다. 뒤이어 2등, 3,4등을 가려내야 하는 시간. 영

영쌤과 두 아이들이 남았는데 영영쌤이 먼저 통과가 되자 천하장사를 연상시키는 몸짓으로 신나 하셨다.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었나 싶다. 센스 있는 산이의 진행으로 적극적이거나, 운이 좋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상품들이 모두 소진되어 가고 그렇게 학교에서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미니운동회를 무사히 마쳤다. 헤어짐이 아쉬운 식구들은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회포를 풀었고 날씨에 대한 걱정과 초조함,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들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렇게 또 하나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인물들로 어떤 새로운 드라마가 완성될지 기대해 본다.

비가 왔다 갔다 해서 교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점심을 먹은 뒤 더 신나는 뒤풀이 시간. 아이들과 부모들, 교사들 모두 참석하는 OX 퀴즈타임. 마지막 살아남는 자는 역대급 상품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그마치 분당 최고 맛집에서 쓸 수 있는 5만원 상품권! 그래서일까 교육모임 시간에는 볼 수 없었던 눈빛들이 반짝였다. OX질문은 사전에 즉석에서 받아서 현장에서 뽕기처럼 골랐다. 굉장한 상품이 걸린 만큼 매우 공정했다. 질문들은 그리 쉽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가령 '이안이네 애완동물 수는 몇 마리인지', '냥구와 씹씹이는 올해 결혼 몇 주년인지', '비야무아네 주차장에 자전거는 몇 대'인지와 같은 웬만한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농구 할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개구리! 수지꿈 농구팀 결성



감독: 개구리

그렇다! 수지꿈학교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소모임을 만들어도 된다. 그 첫번째 도전으로 농구를 사랑하고 농구에 진심인 개구리가 아이들과 함께 수지꿈 농구팀을 만들었다. 열심히 해서 주변학교 도장 깨기를 꿈꾸며 맹훈련 중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승률100% 무패감독 개구리에게 들어보았다. 글 _ 개구리



기로 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팀으로 뭉치는 모습이 가능할지 궁금했고, 그 소중한 경험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었다. 선수 모집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에 붙여놓고 한동안 맘 졸였던 시간이 있었다. 여름방학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체육관에서 모

5월 스승의날, 그날은 선생님들을 조기퇴근 시켜드리고 부모들이 일일교사를 하는 날! 그래서 나는 중등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근처 체육관에서 농구 시합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한쪽 팀이 공을 들고 속공을 펼친다. 같은 팀원이 무작정 패스를 달라고 한다. 공격하던 친구는 패스 안하고 공격한다. 슈~웃…… 노골이다. 슈를 던진 친구랑, 패스를 요구한 친구랑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진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슈은 공 잡은 친구가 하는 거고, 패스는 하다하다 어쩔 수 없을 때 하는게 패스였다. 며칠 동안 그 장면과 그날의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머릿 속을 떠나지 않았다. 에너지는 엄청난데 한 방향으로 함께 쓰지 못하는 에너지가 가까웠다. 무슨 자신감인지 애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이상한 내적 열정이 슈아 울랐다. ‘나, 애들 데리고 팀 만들어서 시합 좀 해봐야겠어’ 그렇게 시작된 단 한번의 시합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농구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누굴 가르치고, 팀을 운영하고 할 능력도, 자질도, 경험도 없었다. 그냥 한번 해보

여서 훈련을 했다. 한 명 두 명 모여든 모든 아이들의 골대를 향한 에너지는 놀라웠다. 이 공은 언제나 저 골망을 흔들거라는 믿음이 담긴 혼신의 슈을 던졌다. 하지만, 들어가는 공보다 안 들어가는 공이 더 많은 아이들이었다. 단순히 멀리서 던진 공이 골망을 흔드는 그 순간의 매력에 아이들은 빠져 있었다. 아무리 가까이서 슈품을 다져놓고 슈 던지는 거리를 늘려 가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보는 앞에서 한번 뿐 등돌리고 돌아서 보면 다시 저~멀리서 정돈되지 않은 슈품으로 공을 던져대고 있었다. 슈품이 자기 몸에 숙달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다.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도 슈품을 익히고 시합에서 유용하게 써 먹을 만큼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있진 않았다. 내가 지도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친다고 내 맘처럼 따라와줄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떡한다... 아이들은 시합 할거라는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고, 열정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한 2주정도 고민한 후 한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것 저것 하기에, 기본부터 다져가기에도 시간이 없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가장 잘 하는 거 그거 하나씩만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 주자~!! 어쨌든 공을 넣을 줄 아는 아이들이 있었고,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할 줄 알았고, 재빠른 동작으로 골 밑을 파고 들 줄도 알았다. 물론 좀 투박하고 매끄럽진 않지만... 공통적으로 반복한 훈련은 레이업 슈. 레이업슈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어느 팀에게서나 갑자기 나타나는 찬스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속공찬스는 1게임 하는 중에 최소 2~3번 많게는 4~5번씩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누구든 그 자리에서 자신있게 공을 던져 성공시킨다면 점수를 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무기가 무기로써 작동할 수도 있겠다 싶은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아이들의 레이업슈은 매끄러워지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 여러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진해서 알려주고, 반복 훈련 해주는 시간도 있었다. 그렇게 레이업슈도, 기본적인 슈팅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가지 큰 숙제가 있었다. 패스.. 갖가지 패스 기술이나 패스 전략들을 기본부터 알려주기 또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패스게임’ 반코트 시합을 하는 날엔 ‘한 팀에 모든 선수들이 공을 한번씩 패스 받고 이후에 슈을 쓸 수 있다’ 는 규칙을 만들어 패스시합을 반복했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패스에 대한 감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듯 했다. 어라! 효과가 있네? 무턱대고 시도한 것들이 효과를 보니 애들 가르치는 재미가 붙었다. 그렇게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숙달시키기 위한 반복 훈련을 하면서 여름 내 체육관에서 열정을 쏟아냈다. 개학을 하고, 상대 학교를 섭외했다. 시합날을 잡았고, 그 사이 아이들은 조금 더 긴장된 상태로 연습에 임했다. 시합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긴장감이 다가왔다. 시합에서 이기고지기에 대한 긴장감이 아닌 무언가 책임감에 대한 긴장이 되었다. 드디어 시합날이 되었

다. 코트에 들어간 아이들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아이들은 손살같이 달렸고, 상대의 실책을 가로채 질풍같이 슈공을 내달렸다. 과감하게 골 밑에서 슈을 던졌고, 공은 골대로 빨려들어갔다. 패스는 부드러웠고, 아이들은 패스를 받으러 분주히 뛰어다녔다. 각자의 몸에 베어있는 그대로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공을 향해 아낌없이 몸을 던지고, 미끄러져 넘어지고도 툭툭 털고 일어나며 다시금 코트를 내달렸다. 철조망 안 코트의 아이들은 농구에 대한 열정을 한없이 풀어내고 있었고, 그들의 플레이를 지켜 보며 원정 응원을 외친 학교 친구들과 부모들은 하나가 되어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었다. 상대 학교 선배들도 승패에 관계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4쿼터의 모든 시간이 흘렀고, 우리 수지꿈학교 아이들이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겼다...! 얼떨떨하면서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 두 학교 아이들은 인사를 나누며 ‘너 잘 하더라..’ 며 서로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웠다. 이겨서라기 보다 그 안에서 보여준 그들의 에너지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아낌없이 몸을 던졌고, 패스 안 준다며 투닥거리던 친구들이 서로를 응원하게 된 그 순간이 자랑스러웠다. 그렇게 석달간의 시간이 흘러갔다. 한여름 땀방울에서 시작된 우리의 도전이 선선해진 가을의 초입에서 결실을 맺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없이 즐거웠다. 농구가 좋다고, 시합하자고 함께 땀 흘려준 아이들과 아이들 연습한다고 토요일 아침마다 주말까지 학교 근처로 라이딩해준 부모님들께도 감사 드린다. 아이들과 어른이 이렇게 경계 없이, 허물 없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건, 수지꿈학교의 분위기라서 가능한 일이었기에 더욱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모두의 열정 덕분에, 승률100%, 무패 감독이 되었다.



방과후 이야기 방과후 돌봄 교실은 순항 중

글 _ 은비



2023년 방과후 돌봄 교실은 새로운 돌봄 교사 여백과 함께 했다. 그리고 씨네편, 나무, 아로아 역시 두 팔 걷고 도와준 덕분에 빈틈없이 방과후 돌봄 교실은 순항했다. 매달 수지꿈 교육비에서 받는 지원금도 여전하고, 홍길동처럼 떡하니 나타나 지원금 보따리를 풀어놓는 믿음직한 운영일꾼 낭구 덕분에 재정적으로도 든든했다. 운영소위의 맛과 영양을 고려한 식단으로 아이들은 맛난 간식도 많이 먹었다. 안전한 먹거리, 따듯하고 시원한, 갓 조리한 음식으로 아이들이 배를 채우고 자라났다.

올해도 방과후 교실은 복적였다. 수지꿈 방과후 돌봄만의 남다른 장점은 무엇일까. 먼저 문턱이 낮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은 물론 누구라도 원하면 방과후 돌봄이 가능하다. 일일 돌봄 신청도 가능해서 그야말로 열린 돌봄



이라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아이들은 학교 후 자연스럽게 같은 학교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학교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학교 규칙 안에서 최대한 아이들의 자율성이 존중받는다. 또한 방과후 교사와 운영일꾼, 부모들이 만나 분기 또는 학기 별 평가 시간을 갖는다. 돌봄을 보내는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고 마음속에 품어왔던 궁금증과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다. 이러한 중간 평가는

더 나은 돌봄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아이들은 돌봄 시간에 친구, 언니, 동생들과 축구도 하고 선생님과 배드민턴도 친다. 방과후 시간에는 더 자유로운 듯 창의적인 놀이가 한창이다. 돌도끼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물구나무서서 세상을 거꾸로 보기도 한다. 나비를 잡아서 파는 사업도 한번 벌여본다. 이 외 초콜릿산놀이, 분장놀이, 병원놀이, 물찌기놀이(?), 그냥놀이, 다양하고 기발한 놀이가 이루어진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한다. 든든한 학교 안 돌봄에서 아이들은 행복하고 자유롭다.

‘탱! 탱! 탱!’ 공이 신나게 배드민턴 채에 튕겨져 나간다. 방과후 돌봄 시간 배드민턴 공을 주고받는 여백과 아이들의 모습은 언제나 봐도 눈부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인가. 수지꿈 방과후 돌봄교실 교사로 선듯 나서준 수지꿈의 산증인 여백을 만나보았다.

수지꿈 방과후 돌봄교실에 오시게 된 계기

졸업하고 다시 이곳에 오는 게 많이 망설여졌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했던 부모들 주도로 시작된 돌봄 교실이 정착하는데 부모들이 많이 애쓰는 것을 보았다. 돌봄 교사 구인이 힘들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면 해봐야지 했다. 얘기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자꾸 전화했다.(웃음)

보람있는, 즐거운 순간이 있다면

방과후 돌봄은 여러 학년의 아이들이 뒤섞여 있다. 아이들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통해 많이 배웠다. 아이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들 나름대로의 소통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 교사가 주도해 중재한다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것도 배웠다. 내 역할은 아이들끼

리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애 셋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면서 나는 아이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오니가 애들이 너무 예쁘고 내가 엄마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게 좋다. 힘든 아이가 있으면 마음에 걸리고 뭐라도 해주고 싶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가 너무 즐겁다. 아이들과 농담하고 배드민턴치고,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느낄 때, 느슨하게 내 곁에 있던 아이와 끈끈하게 눈맞춤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짜릿한지.

힘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음... 복지?(웃음) 방과후 선생님의로서 힘든 건 없다. 개인적으로 중요하거나 급박한 일이 있을 땐 빠지면 좀 미안한 거?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부모들과 아이들 개별 면담을 했다. 방과후 시간에 만나는 아이들에 대해 파악하고 싶었다. 실은 내가 어떤 도움을 주기보다 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이들과 지낼 때 도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거라 생각했다. 이 공간에서 아일 키워본 학부모라서 서로 할 이야기가

돌봄교사 여백을 만나보자



풍부했었던 거 같다. 그리고 해줄 얘기가 있어야 하니까 아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게 되고, 하고 난 후에도 아이를 더 잘 알게 되어 또 잘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후에도 여력이 된다면 일 년을 같이 보내고 난 뒤 한번 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백에게 방과후란

활력소. 에너지를 받아가는 곳. 집을 지으면서 할 일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했던 어느 날 차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오늘 아이들은 나를 처음 보니까. 새로운 나로 차 안에서 리셋된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 나의 고민거리에서 분리된 기분이다. 정작 내 개인의 중요한 일을 못하긴 하지만(웃음)

계절학교 이야기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전래놀이, 생태, 요리, 풍물, 베이킹, 공예, 키즈요가, 스마일키퍼스, 미술심리놀이활동... 2023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계절학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다.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한 수지꿈학교 계절학교. 그 중 여름 계절학교에서 열린 여름생태, 풍물, 전래놀이, 요리, 베이킹, 공예의 즐거움에 풍덩 빠져보자. 글 _ 은비



첫 번째. 더운 날도 우리의 숲은 살아있다! 밤토실의 여름 생태
여름 햇살이 조금은 가물거리는 오전, 밤토실 선생님은 아이들과 학교 근처 산, 광고산체육공원, 신봉계곡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아이들에게 여름의 숲을 선물해 주었다. 한여름의 쨍한 초록 속에서 아이들은 나뭇잎을 따고, 밤토실은 숨겨진 나뭇잎 이야기를 술술 풀어낸다. 신봉계곡에서 수서곤충을 찾아내면 꿈틀거리는 그것에 아이들은 열광한다. 그리고 물 만난 김에 그 뜨거운 열기를 친구, 형님, 동생들과 웃음어린 물장난으로 씻어내기도 한다. 댁에서 가져온 곱디고운 꽃들을 바닥에 주욱 늘어뜨리면 아이들은 그것을 콩콩 짚어 손수건을 만들어도 본다. 알록

달록 오색 돌로 자연물 놀이도 하고 벌집도 보고 꿀벌이야기도 들었다. 여름 계절학교에 오면 더위도 잊은 채, 여름을 흥뻑 맞을 수 있다.

두 번째, 방학해도 뉘출 수 없다. 빙그레의 풍물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빙그레. 여름방학에는 쉬고 싶으시련만 아이들의 뜨거운 구애에 못 이겨 풍물 시간으로 방학에도 또 만날 수 있다. 풍물도 너무 좋지만, 빙그레가 해주는 이야기는 왜 이리 재미난지. 네 다리 내 다리 다리사이 '코카콜라 맛있'다' 놀이는 빙그레와 하면 또 왜 이리 더 신난지. 풍물하기 전 읽어주는 그림책은 또 왜 이리 달콤한지. 학년별 수준별 풍물로 풍물이 낯설어도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고 '덩기덕 쿵'



내 장단 네 장단 서로 맞으니 이건 또 왜 이리 흥겨운지. 빙그레의 풍물 시간 너무나 재미있어. 방학 때도 만나는 반갑고 편안한 우리 빙그레.

세 번째, 들어는 봤나. 전래놀이



전문가. 보리의 전래놀이
우유팩으로 딱지 만들어서 치고 날리기, 돼지몰이, 땅따먹기, 비석치기, 에그퐁, 공기놀이, 산가지, 신문지놀이, 고누, 망쭈기, 하나둘셋슬래잡기. 이것은 수지꿈학교 대표 전래놀이 전문가 보리가 여름학교에서 펼쳐준 놀이들이다. 골목이 사라지고 거기서 만났던 놀이 선배



들도 사라졌지만 맥이 끊길 뻔 했던 전래놀이들이 수지꿈 계절학교에서 숨 쉬고 있다. 전래놀이는 혼자서는 못한다. 서로 만나고 숨 쉬고 눈도 마주쳐야 한다. 정해진 방법과 규칙 안에서 이기는 법도 지는 법도 배운다. 아이들은 우유팩으로도 딱지를 접을 수 있고 신문지로도 놀이할 수 있다. 바닥에 선만 긋고, 돌만 주우면,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놀 수 있다. 잘 노는 아이가 다 잘한다.

네 번째. 내 밥은 내가 한다. 하늘샘의 요리 시간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아닐까. 부모들은 방학이 되면 점심 추가로 머리를 쥐어짤다. 하지만 수지꿈학교 여름학교에서는 엄선된 식재료로 갓 지어낸 밥을 먹을 수 있다. 이 뒤에는 방학 때도 뜨거운 불 앞에서 한 상 차려내시는 하늘샘이 있다. 그런데 하늘샘이 요리교실도 열었다

떨어낸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늘샘의 말에 귀를 쫓긋대며 뜨거운 불 앞에서 뭔가를 끓여낸다. 스스로 제 먹을 밥 한 끼 해낸 아이들은 어깨가 으쓱한다. 엄마, 저 궁중떡볶이, 닭 칼국수, 색 수제비, 오므라이스, 떡국 할 줄 알아요!

다섯 번째. 아이들의 심장을 녹인 진솔샘의 베이킹

베이킹 시간에 녹인 것은 초콜릿인가, 아이들의 마음인가. 베이킹 시간이 되면 방학 중에도 학교가 들쭉거린다. 바로바로 일일 계절학교 신청이 돼서 베이킹 시간에 따로 학교에 와서 빵을 만들고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 초코칩 쿠키, 물고기 마들렌, 초콜릿 머핀, 수박 쿠키. 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아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 "선생님이 너무 예뻐요. 너무 친절해요. 못한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다 갖췄다. 상냥하고 아름다운 선생님이 맛있는 빵까지 먹게 해준다니. 무적이다.

여섯 번째. 두문불출하던 아이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공예 시간

베이킹과 더불어 초절정 인기 쌍두마차, 공예. 아이들은 공예하는 날이 되면 아침부터 들뜬다. 공예할

때는 뭘 만들까 기대되고 예쁜 게 많단다. 색소가 너무 알록달록 예쁘고 만드는 법도 쉽고 재밌다고 한다. 계절학교마다 가져오는 초를 한 곳에 전시해 놓으면 자기가 만들었다고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알록달록 비누도 가져와서 세면대 한켠에 두면 손이라도 한 번 더 씻는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쓰고 먹고 입는 것 내가 만들어 보고 만들 수 있다는 것, 나도 살아가는 능력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 이것만큼 마음 부풀게 만드는 게 있을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 지나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 지나'라는 본인 소개답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지나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무척 바쁘셨을 텐데 흔쾌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진행 _ 박해원 / 사진·정리 _ 와디

교사 생활을 얼마나 하셨나요?

수지꿈에서 올해 7년째이고, 담임으로는 6년째입니다. 수지꿈 외 교사 생활까지 합치면 8년 정도 되었네요.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나요?

중학생 무렵부터 막연하게 꿈꾸었다가 고등학생 때부터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어요. 학창 시절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분들처럼 재미있는 수업을 해 보고 싶었어요.

수지꿈학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요?

가장 재미있고 관심 많았던 과목이 영어였어요. 그래서 영어교육과에 진학했죠. 그곳에서 교육학을 배우는 건 좋았지만 교수법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획일화된 내용들을 접하게 됐어요. 이런 방식의 수업은 재미도 없

을뿐더러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일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교생실습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하면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육 관련 도서 모임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대안학교 선생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 수지꿈학교를 알게 되었죠. 이후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대안교육 연대에서 진행하는 대안학교 교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대안교육을 주제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던 그분은 이제 선생님의 평생 짝꿍이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나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만의 모닝 루틴'이 있나요?

눈 뜨기 바빠서... 하하하! 목 보호를 위해 따뜻한 물을 한잔 마신 후 간단하게 주스나 커피를 마시고 열심히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영어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영어 뉴스를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하는 방법이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담아두는 성격은 아니에요. 운동과 외국에서 고생스럽게 여행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여행 계획을 짜면 즐거워요.

곧 가족이 될 신랑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예비신랑은 대안학교에서 10년 정도 근무한 교사예요.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학교생활 하고 있어요. 저랑 성향이 반대여서 서로 신기해하며 만났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끌렸던 것 같아요. 둘 다 내년(2024년)에 안식년이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요. 그래서 올해 말 결혼식을 올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했지요.

여행 계획을 들려주세요.

미주와 남미에서 4개월 정도 지낼 예정이고 파리 월드컵이 개최될 즈음 유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행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내가 몰랐던 그 나라만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러시아 여행 중 어느 시장에서 국밥 같은 것을 시켜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역했지만 시장 아주머니 앞이라 꾸역꾸역 먹었거든요. 밤에 너무 고생했어요. 그 이후로는 적당하게 보이는 음식을 도전하려고 해요. 그때 먹었던 음식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해원의 치솟은 유럽 물가 걱정에 선생님은 알뜰살뜰 잘 계획해서 다녀오겠다고 답해주셨다. 이어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선생님은 어떤 어린이였어요?

초등학생 때는 맨날 나가 뛰어놀아서 새까맸어요. 체구는 작았지만 활동적이었고 목소리도 컸어요. 중학교 가면서 점점 차분해졌어요.

당시 좋아하던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4~5학년 때 해리 포터를 접하면서 책에 관심이 커졌고 독서를 많이 하게 됐어요. 번역본으로 여러 번 읽다가 원서가 궁금해서 당시 영국 유학 중인 친척 오빠에게 원서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Apple'도 읽고 쓰지 못했지만 소설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단어를 유추하거나 공부하면서 읽었어요. 그것이 영어에 대한 첫 경험이었고 폭 빠지게 된 계기였어요.

학창 시절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교사에 대한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담임선생님이 반에서 조를 나누어 조 담당자에게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때 저는 영어와 국어를 우리 조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담당자였는데 친구들 공부를 도와주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 깊게 공부하고 암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엄청난 교수법이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수업에서는 몰랐는데 내 설명으로 이해했다는 친구들의 말에 기쁨과 뿌듯함도 느껴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선생님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선생님은 한마디로 '교사가 체질'이었다. 교사로서 맹활약 중인 수지꿈학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수지꿈학교에서 7년을 보내셨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7년 동안 한 학교에서 계속 생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들이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 나 스스로의 성장도 너무나 컸어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할 때도,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 더 커야 하지만 나를 성장시켜준 이 학교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수지꿈학교'니까요.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차이점을 교사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영어교사와 더불어 청소년 상담일도 하고 싶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사춘기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고 싶었죠. 그러려면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일반학교에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수지꿈학교나 다른 대안학교들은 교사와 아이들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심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운동회 때 산이 노래를 부르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하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깜짝 서프라이즈를 받아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그만큼 노래도 충격적이었답니다. 산, 죄송합니다, 하하!

대안교육에 대한 선생님만의 철학이 있나요?

반드시 대안교육만의 철학이라기 보다는... 내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요. 가르치고 함께하는 나의 마음 상태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아이들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수업과 활동도 그런 기준에 맞춰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수지꿈 친구

들에게 영어 공부 팁을 알려주세요. 영어는 언어이고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영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반복적으로 공부하게 돼요.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지꿈학교 교사로서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젝트가 있나요?

매해 조금씩 바뀝니다. 9년제 전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면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등과정에서 오다가 초등과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주고받는 졸업생이 있나요?

요즘은 결혼식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와요. 그리고 매해 스승의 날 즈음이면 졸업한 지 한참 된 친구들이 학교에 찾아옵니다. 졸업생들을 보면 기대고 싶고, 하하! 언니같기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들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친구들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깨어나가서 자리를 잘 잡는 것을 보고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지꿈 친구들에게 학창 시절에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학교 규칙안에서 잘 지내야 하지만 종종 (가벼운) 사고를 쳐도 큰일 안나고 세상 무너지지 않는다!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무엇이든 도전해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지꿈 구성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다림'이요. 아이들은 결국 자기만의 방식을 잘 찾아갈 텐데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불안과 걱정이 앞서죠. 자기 안에 씨앗이 있고 내면의 힘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아이들은 어디서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하! 동료 선생님들이 학교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지켜주는 힘, 응원해 주는 마음이 없다면 학교생활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서로 살피주고 응원해 주는 마음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행복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질 것이다!



마치 주문처럼 외친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울리는 듯하다. 선한 에너지로 푹푹 뭉친 선생님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지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세계여행 즐겁게 다녀오신 후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뵙길 바란다.

2023년 수지꿈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 소박하게 시작한 2023년이었습니다. 덕분에 신입생 1학년 친구들은 형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일년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도 소수정예 교육을 받으며 수지꿈에 더욱 녹아드는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적응 끝났을것 같은 2023년 새로운 여덟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새로오신 에이든, 지혜샘도 만나보았습니다.
정리_셋별 / 선생님 인터뷰_느긋

문익, 문흔(3학년, 1학년)

별반 문익과 빛나는곤충연구소 문흔의 가족, 고래와 찰리입니다. 고기동에서 차 없이 수지꿈학교에 다니지 열 달이 다 되어가네요. 문익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마을의 성미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국내 아마 최초의 구립 공동육아 어린이집이었죠. 코로나 시대에 문익과 문흔 고래는 중국 우한으로 돌아가 초등학교 입학할 하고 중국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2023년 2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국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수지꿈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아직은 중국어가 훨씬 편해요. 올해는 광주, 순천,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차 타고 순천, 배 타고 제주를 갔고,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문익은 루빅스큐브와 체스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종이접기가 재미있나 봅니다. 문흔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룹니다.



고래와 찰리입니다. 기차 타고 순천, 배 타고 제주를 갔고,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문익은 루빅스큐브와 체스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종이접기가 재미있나 봅니다. 문흔은 사람들과 관계도 잘룹니다.

한라인(2학년)

오전 8시20분 등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가방을 메고 벗어놓은 안경을 찾아쓰고 현관에서 빨리 학교 가자고 채근하는 레인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차를 타면 즐겨듣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입니다를 들으면 서 오늘도 씩씩하게 수지꿈학교로 등교하는 레인이 덕분에 아빠 여유와 엄마 오늘은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의준(3학년)

수지꿈학교에서 그동안 숨겨둔 열정을 내뿜으며 세상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배움의 속도로 행복하게 자라주길 아브라, 모아가 응원합니다.



최하늘(4학년)

꿈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고, 학교가 재미있다는 하늘이 덕분에 아빠 David도, 엄마 Anna도 매일이 신나고 감사해요.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체험 행사들과 축구 덕분에 친구들만이 아니라 동생들 형들과도 친해질 수 있다는 하늘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하늘이와 함께 꿈학교를 통해 행복한 자유인으로 성장해 나갈 하루하루를 기대해 봅니다!

홍지우(1학년)

야구동호회에서 만난 길냥+집냥과 엄빠따라 3살차이인 지우+우찬, 집안에서 가장 꿀떨어지는 커플인 레이+달리까지 6식구가 다글다글 살고있습니다. 함께 더 많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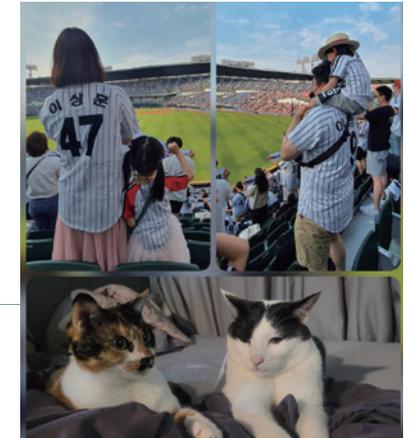
노준수(1학년)

곤충박사들이 준수, 준호는 알콩달콩 사랑하는 잘생긴 당근과 예쁜 토끼의 귀염둥이 아들들입니다. 수지꿈에서 하고 싶은거 다 하며 즐겁게 지내고 싶은 준수와 수지꿈에 올 날만 손꼽고 있는 준호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수지꿈이 되길!! "행복은 늘 가까이 있었어."



주선율(1학년)

재미있는 것 만드는게 일인 아빠 보름달과 손으로 만드는 건 뭐든지 잘하는 엄마 셋별, 의젓한 형 선재와 장난꾸러기 막내 선율이,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 선이까지 다섯 식구예요! 꿈학교에서 즐거운 일이 가득하길!



김승우(1학년)

동물과 아기자기 예쁜 것들을 좋아하고 세심한 7학년 석현이를 형으로 둔 수지꿈 1학년 신입생 승우는 잘 웃고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만들기에도 관심이 많아요. 아빠 돌맹이는 술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술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합니다. 엄마 흥씨는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경샘이 아닌 남!자! 선생님을 수지꿈에서?? 오빠같은 시반 에이든샘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별칭과 그 의미, 그밖에 다른 것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꿈 학교에서 4,5학년 살림 반을 맡고 있는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별칭을 에이든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새로 만들기보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사용하던 영어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에이든'이 아닌 '에디슨', 혹은 '에이드'라고 부르곤 합니다.

수지꿈에서 첫 해는 어떠셨나요?
아직 첫 해가 모두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힘들기보다는 행복했고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수지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이들이 제가 준비한 수업을 즐겁게 참여하고 내용을 잘 이해했을 때입니다.

하루 중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학교에 출근해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 하루가 잘 마무리 된 후 온전히 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의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신입교사 교육을 그 어느 해보다 열심히 받으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선 신입 교사보다도 열심히 연수를 해주신 대표교사 여경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들어올 때는 잘 알지 못했던 학교의 역사,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수지꿈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시길 기대가 됩니다. '나는 수지꿈의 000가 되겠다.' 로 표현해 주신다면?

'나는 수지꿈 학교의 형, 오빠와 같은 교사가 되겠다.'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수지꿈 학생들이 제게 친형 또는 친오빠에게 대하듯 편하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몸놀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뛰며 놀아줄 수 있는, 화이팅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지혜롭게 수지꿈에 젖어들어가는 푸른반 여신 지혜샘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별칭과 그 의미, 그밖에 다른 것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왁자지껄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별칭은 '더디가도 꾸준하게, 어려워도 재미있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자는 의미로 짓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가족끼리만 부르던 편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지혜~라고 부를 때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좋아요.

즐거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들과 캠핑하는 것을 좋아해요. 신혼 때 처음 캠핑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세 살부터 함께한 것 같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자연 속 집을 짓는 동안 자그마한 손으로 망치질을 돕고 킥 보드를 타며 주변을 뛰놀던 모습이 아직도 너무 생생히 잊혀지지 않아요. 행복했던 기억들로 인해 멈출 수 없는 취미가 되었죠.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부모보다 친구들이 더 좋아질 때도 오겠지만 어린 시절 풍부한 경험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수지꿈에서 첫 해는 어떠셨나요?

수지꿈학교에서의 첫 해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대안학교에서의 근무는 처음이라 선배 교사들의 열정과 노하우를 익히며 열심히 따라 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늘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푸른반 아이들이 있

어 지금은 여느 때보다 넉넉한 계절의 풍미를 덤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앞으로 맞이 할 몫시 기대되는 겨울... 계절이 바뀌듯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입니다.

1년동안 수지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박 3일 들살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1~5학년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별활동 및 물놀이를 너무나 즐겁게 했거든요. 비소식이 있어 물놀이를 못할까 걱정했지만 역시 수지꿈!! 비를 맞으며 물놀이 투혼을 펼치면서 결국 비구름도 몰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컵라면과 수박을 흡입하고 그날 밤 꿀잠을 자던 아이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집을 떠나서는 잠을 자기 힘들었던 친구들도 그날은 집 생각이 안나는 눈치였어요. ^^ 2박 3일 일정이 아쉽다, 다음에는 더 많~~이 자고 오자는 아이들을 보고 두 손을 엄지척했답니다!!

수지꿈 식구들에게 보내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신입교사로서 저에게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수지꿈 식구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한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지꿈 식구들의 헤안을 아이들과 사랑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회 졸업생부모, 수지꿈학교의 살아있는 전설 <산미테>를 소개합니다

작년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 여백이 다음 타자로 지목한 사람 '산미테'를 산 밑에 막 지어진 여백의 새 집에서 만났다.
인터뷰, 글 - 언덕 / 정리 - 느긋

언덕 여백이 산미테를 추천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백 1회 졸업생이라는 상징성과 언제나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백 앞으로 나섰던 거 같은데?) 지금까지도 산미테는 대안학교의 그때 그 모습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삶 자체가 그렇다. 꿈학교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다. 소식을 통 해서나마 산미테를 소개하고 싶었다. 산미테라는 사람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덕 만나기 힘든 분인데 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다. 어떻게 대안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했는가?

산미테 산아래가 대안학교를 하겠다 해서 같이 했을 뿐이다. 만들자고 하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대다수가 다니지 않는 길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편이다. 큰 아들이 당시 일반학교 초3이었는데 날마다 한자를 한 장씩 써가는 숙제를 해야 했다. 매일 짜증을 받아주는 것이 일어났다. 도대체 아이는 왜 저걸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형화 된 틀에서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싫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흘러가는 대로 꿈학교는 변할 것이다.

대안학교 보냈다고 해서 그 부모가 특별하지 않다.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 좋은 거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언덕 학교 만드는 과정은? 학교를 새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

산미테 쉽지 않은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즐거운 시간에, 참석할 수 있을 때만 참석했다. 쉽지 않은 과정은 산아래가...

언덕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산미테 지금 25살, 23살이다. 수지꿈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강원도 대안학교로 진학을 했다. 대안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다른 집안 아이들보다 더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있다. 밤새 게임해서 천불이 날 때가 많다. 대안학교에 보냈다고 특별함을 내심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뭐 하나 시키기도 힘들다. 시키려고 하면 미리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따진다. 당당하다는 점이 다른 건가?

언덕 아이들을 보며 대안학교 보내길 잘했다 생각하는 지점은?

산미테 부모가 편안했던 것이다. 별다른 고민 없이 대안을 선택했게 편했다. 아들이 선택한 대안 중, 고등학교는 당시에 이미 6년이 된

학교니까 신생 꿈학교처럼 힘들지는 않겠지 생각했다. 그동안 일 많이 했으니 아이들 보내고 편히 있자 했는데, 중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분란이 일어났고 어쩌다보니 운영위원장이 됐다. 난 어딜가나 돈보이나보다. 편안하지 않았네? (하하하하)

언덕 산미테에게 수지꿈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다.

산미테 평생 연을 이어갈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3년차 때 큰 갈등이 일어나며 힘들었지만 한 단계 내가 성장한 시간이 되었다. 대화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빙빙 돌려 문제를 푸는 것보다 욕망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언덕 후배들에게 한 마디...

산미테 내가 대안학교 보낼 때의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 졸업하며 꿈학교 떠날 때 꿈학교는 나 다음의 학부모, 교사, 아이들이 꾸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흘러가는 대로 꿈학교는 변할 것이다. 대안학교 보냈다고 해서 그 부모가 특별하지 않다. 있

는 그대로 살면 된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 좋은 거 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꿈학교를 보내는 부모라면 충분히 자기 모습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지 않는 대안교육의 길로 접어들어 꿈 학교도 선택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자신감으로 자신을 믿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끼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 옆에서 "힘들지?"라며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툭 치며, "별거 없어. 그냥 하면 돼" 말해 주는 사람이 있다. 산미테는 세상 모든 부담을 그냥 툭 털어주며 뭐든지 그냥 어려울 거 없는 듯이 느끼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쉽게 만들어 주는 선배가 우리 주변에 있음에 감사하며, 다음 인터뷰는 산미테가 지목한 공백으로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따뜻한 남쪽나라로 갑작스런 떠밍아웃을 한 남구와 씽씽이를 만나 보았다

그들이 떠밍아웃을 했다! 수지꿈학교가 줘야 그들의 성에 안착나보다. 바다건너 남쪽나라로 떠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에 발병난다 협박도 해보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에 행복하게 보내주기로 한다. 찬 바람이 부는 초겨울 작은 선술집에서 갑작스런 우리의 인터뷰는 시작되었다.
인터뷰 _ 공간차이, 소머즈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설레이고 기대되기도 해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차_ 씽씽이가 걱정을 한다구요?
씽씽이_ 저 생각보다 새로운 곳에 가서 많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시간이 지나야지 녹아 드는 성향이에요 (소머즈, 공차 말도 안된다는 눈빛을 보낸다.)

소머즈_ 국내도 아니고 멀리 해외로 나가서 생활해야 하는데 어떤 감정이예요?

씽씽이_ 음~ 한 챕터가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구_ 너무 아쉽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아이들도 저와 씽씽이도 심표를 한번 찍고, 좀 돌아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공차_ 호치민 가면 언제 와요?

씽씽이_ 2년 동안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서 화학 선생님을 해요. 2년 후에 꿈학교로 돌아 오고 싶은데... 그때 사정을 보고 가능하면 그러고 싶어요.

간다~ 후련하다~"인지.(하하하)
소머즈_ 남구 꿈학교 생활 중 아쉽거나 서운한 점은 없었어요?
남구_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없었어요. 다 재밌었어요. 아직 호치민에 가는 것 아직 실감도 안나고 떠난다는 생각도 안들고 그냥 그래요.
씽씽이_ 학교에서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서 아쉬워요. 아쉽기도 하지만 새롭게 다른 나라에서 생활



공차_ 남구 어서와요~
남구_ 갑자기 이게 무슨 일 이래요?
공차_ 이제 베트남 가는데 얼굴 볼 수 있을 때, 많이 불러구요.
소머즈_ 많이 봐줘야죠! 이번 학교 소식지에 남구와 씽씽이 인터뷰 넣으려고 불러요. 4년동안 수지꿈에서 일꾼도 하고 열심히 활동 해주셨는데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원섭섭인지. "잘 있어라 난



소머즈_ 남구와 씽씽이가 없는 수지꿈학교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요.

~" 라고 하더라고요. 꽤 오래 고민해서 놀랐어요. 정말 할머니랑 둘이서 수지꿈에 남아서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 같아서.

소머즈_ 할말은 많지만 수지꿈학교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남구_ 떠난다는게 아직 실감이 안나지만, 수지꿈에 다시 돌아올 날을 먼저 생각하기도 해요.

남구로 산 시간이 온전히 나 자신이었던 거 같아서... 떠난다고 생각하면 많이 아쉽고. 마음 반이 막 떨어

져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즐거웠지만, 특히 일꾼하면서 수지꿈 곳곳을 만나고 마음

것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도 아이도 나도 커가는 과정이고

지나가는 과정이라 여기면서 사람들이랑 마음 내놓고 얘기 하면서

지내다 보면, 다시 한번 이 공간에서 지낸 시간을 긍정하고 확신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지꿈이 더 좋은 공동체가 되어갈 것이라

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멋진 성장이 있는 수지꿈에서 곧...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그때까지... 안녕~

씽씽이_ 신나고 두근거림이 제게 또 있을까 했는데 4년 남짓 수지꿈에 있으면서 아~~ 무궁무진 하겠구나라고 느낍니다. 일로 만나지 않

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지 몰랐습니다. 제게,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설렘을 준 수지꿈에 감사합니다. 주말이 더 힘들다고, 윈일이 이리 많냐고 투덜거렸지만, 자주 보는 얼굴도 반갑고 궁금했고, 그렇지 못한 얼굴도 늘 그리웠습니다. 한주가 멀다하고 부딪치던 술잔들도, 웃기지 않은 농담에 묻은 웃음소리도, 까르르 뛰여 다니던, 땀방울 송송 땀 아이들도 잊지 못할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편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차_ 4년동안 학교 생활을 한문장으로 표현 하면?



씽씽이_ 한 문장이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게요.



수현, 지현 가족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길 바라며 아쉬운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2년 뒤 수지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내년 휴가는 이미 베트남 호치민으로 결정한 건 비밀...로.



달콤함으로 후배들의 심장을 녹여버리는 졸업생 심술(쌤)을 만나다

수지꿈학교 후배들의 롤모델 1위!! 계열학교에서 베이킹수업을 하며 후배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수지꿈 졸업생 심진솔을 만나보았다. 인터뷰 _ 느긋

던 계정이 점점 인지도가 높아져 보람을 느낍니다. 작년부터 전공을 살려 수지꿈 방과 후에 베이킹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 제의를 받고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고 베이킹 수업을 좋아해주어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 덕에 오히려 베이킹 수업을 제가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다시 학교에 와서 보니 학교를 다니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안녕하세요. 수지꿈학교 졸업생 심진솔입니다. 졸업 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현재는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꾸준한 관심사는 홈베이킹입니다. 직접 빵과 과자를 구워 선물을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베이킹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고 SNS에 업로드 합니다. 성장과정을 기록하고자 시작했

학교 터전은 가정집 같은 구조에 바닥이 따뜻했고 바로 옆에 놀기 좋은 산이 있어 쉬는 시간에는 아지트를 만 들었습니다. 타이어 그네와 물이 흐르는 도랑도 기억에 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와 학교 앞집에 가서 앞집 아기와 놀아줬습니다. 앞집 아줌마께서 간식을 챙겨 주곤 하여 그 간식을 받기 위해 그 집에 간 건 아닐지 하

는 생각도 듭니다. 이웃들과 정겹게 지냈던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돌아보니 수지꿈에서 키운 자신감과 대화방식이 삶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지꿈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항상 발표위주의 수업이었습니다. 토론 수업이나 발표 수업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발표에 자신감이 생겼고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에는 항상 발표 담당을 맡았습니



를 회피하여 일이 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기에, 수지꿈에서 경험한 대화방식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수지꿈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마음껏 경험을 쌓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수지꿈에 있을 때가 나에게 맞는 건 무엇인지, 맞지 않는 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뿐만이 아닌 쉬는 시간과 방과 후에도 다양한



놀이와 시도를 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연을 준비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영화를 찍어보기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수지꿈에서 접했던 다양한 경험들은 적성에 맞는 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수지꿈에서 지낸 경험 덕분에 적성을 찾을 수 있었고 이제는 전공을 살려 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베이킹 클래스를 하며 주문 제작을 함께 받는 나만의 스튜디오를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많이 놀러 오세요! @bakery_ou



마을로 뻗어나가는 수지꿈 안녕하세요, 수지꿈학교 연대일꾼 비아입니다

초짜티 팍팍 내며 뿔내 나는 연대일꾼 딱지를 붙이고 생전 와볼 법하지 않은 곳에서 얼마나 이 말을 많이 했던가. 올 한 해는 나에게 이제껏 다져온 삶의 결을 다시 한 번 꺾어낸 해였다. 학교 운영진만으로도 얼떨결인데 갑자기 혹 확장된 영역을 주섬주섬 감당하면서도 벅찬 순간들이 많았다. 이거는 나 쓰고 싶은 만큼 다 쓰라고 소머즈가 그랬다. 좀 주절거려도 받아주시겠지. 글 _ 비아



우리 마을 공동체, 동천마을네트워크

작년에 목소리 큰 호연이 잠껏 노래하라고 마을가죽합창단 ‘밭챙알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냥 노래하러 간 거였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무대에 일곱번이나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마을의 소소한 행사부터 메시지가 짙은 자리들까지, 노래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갔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된 이 동네의 정체... 동천동 이사 온 지 5년 만에 여기가 이렇게 살아 숨 쉬는 동네였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 중심에 동천마을네트워크가 있다. 느티나무, 밤토실, 굿모닝, 숲속 등의 작은 도서관들과 책방 우주소년, 그리고 소명, 이우, 수지꿈, 마을배움터 공공 등의 교육기관들, 꿈지락, 사다리, 문탁 네트워크, 달보다손가락 밴드, 극단 동동 등의 예술동아리 등 30여개의 단체들이 도란도란 혹은 치열하게 소통하며 도시 속 마을공동체 삶을 실현하고 있다.

동마넛와 8년지기?!

그런 동천마을네트워크와 수지꿈학교는? 놀랍게도 2016년부터 무려 8년지기 인연이라는 사실. 동마넛이 설립되고 한창 활동을 시작할 초입부터 우리는 함께해왔다. 그러나 실제 인지도나 기여도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동마넛 자체의 중심이 이우학교였고, 수지꿈은 나름대로 고속성장(?)을 하며 내실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오맹달 = 꿈학교” 공식이 어디든 통하는 것을 보며, 5년 동안 연대 지박령이었던 맹달의 맹활약을 온몸으로 직관했다. 그가 동분서주하며 쌓아온 기반 위에서 우리는 날아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였다.



머내만세운동으로 포문을 열다

첫 시작은 만세가 제격이지. 동천동과 고기동 일대를 오래 전부터 ‘머내’라 칭했다 한다. 머내 지역에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3월 29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자취를 마을주민들이 직접 발굴해내어 이를 기리기 위한 행사를 매년 거르지 않고 있다. 하물며 코로나 시국에도 온라인상에서 만세영상을 주고받지 않았던가.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무조건 태극기를 들고 마을로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된다. 수지꿈에 떨어진 첫 미션은 광목천 태극기 100장 만들기. (진행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꿈 아 이들이 그린 태극기를 받아든 사람들이 떼를 지어 만세를 부르며 마을길을 걸었다. 고기초에서 낙생저수지를 지나 동천초 옆 공원까지 오는 길에 무수히 깔린 꿈티가 그토록 번쩍일 수 없었다. 신명과 감동을 번갈아 올리던 풍물패 소풍의 등쪽도 절반이 꿈이었다는게 나는 왜 그렇게 좋았을까. 2002 월드컵인 양... 원래 국뽕에 약한 심성이 학뽕(?)으로도 가는구나 싶다. 그에 더해, 만세와 그 이상 찰떡일 수 없던 우리 승무복가락팀의 복장단은 말 그대로 그 날의 정점을 찍어주었다. 그렇게 2023년의 머내만세운동은 ‘마을로 뛰쳐나온 수지꿈’의 날이었다.



해도두리 장터로 장터스킬 up up

“수지꿈학교 이번 해도두리 안 오시나요.” 가장 많이 받은 콜인듯. 올해 해도두리 장터는 동천동 다이소 앞 손곡천에서 4회 열렸고, 우리는 먹거리부스로 5월에, 중등 아이들이 10월에 참여했다. 햇살 맑게 부서지는 냇가를 따라 하얀 파라솔들이 즐비하고, 저마다 먹거리, 만든거리, 볼거리 등을 나누며 소통하는 마을 플리마켓. 수지꿈의 소떡소떡은 작년부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고, 올 한 해 술한 행사들을 거치는 동안 살림소위의 노하우와 일꾼 및 지원자들의 고군분투를 갈아 넣어 수준급 메뉴들이 추가되었다. 수지꿈 안 오면 먹거리가 휘청인다는 말에 흐뭇하고, 인건비 제로인 저렴한 단가에도 학교 재정에 살 붙일 수 있어 뿌듯하고. 실제 홍보 효과가 선발로 직행될 확률은 낮지만 이를 차치하고라도 마을과 함께하는 꾸준함은 의미를 갖는다. 손곡천에서 꿈티 입고 신발 벗고 점봉대는 아이들은 이제 해도두리의 디폴트 아닐까. 너도나도 한 손에 꿈스티커 딱 붙은 음료통 들고 걷는 풍경도.





인생 프로젝트... 머내마을영화제

이게 이렇게 큰 판인지 몰랐던 건 나만이 아니었다. 예술 플랫폼 공지락협동조합도 이 영화제를 6년째 하면서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 한다. '길, 네게 묻고 함께 걷다'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행사기간 동안 37개의 작품을 상영하고 개·폐막제와 야외영화축제, 나도감독 상영전, 청년감독 상영전, 14개의 동네방네 상영관 운영, 30여개의 마켓이 출동한 플라마켓, 전시와 마을여행 등을 소화해내며 무려 1000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마을 단위로 민간에서 개최한 영화제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런 가운데, 새내기 마을활동가 비아는 뭐가 뭔지 큰 그림도 모른 채 하나하나 주워 넘기느라 숨이 가빴다. 밥챙알챙과 승무복가락 공연팀을 챙기고, 수지꿈 먹거리 부스를 지원하고, 중고등 홍보팀즈와 양말목 체험부스를 꾸리고, 수지꿈학교 상영관 영화를 선정하고, 감독을 섭외하고, 시네토크를 준비하고, 길냥과 함께 사전이벤트 행사를 기획하고, 어린이스텝들을 진두지휘하고, 닥치는 대로 홍보하고, 이 와중에 내 욕심에 들어간 첼로양상블에서 킁킁거리고, 개막제에 뛰어가 포스터를 붙이다가 학교로 뛰어가 막 시공한 우듬지터 마루를 닦았다. 6월 첫 회의 이후로 3개월을 내내 마라톤 뛰는 심정이었다. 내 그릇이 요만큼이구나, 돈 안 버는 일로 이렇게 바쁠 수도 있구나, 헛웃음 나던 날들도 술했지만 종내는 이 거대한 일을 맨손으로 일으키는 분들에 대한 경이가 앞섰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한껏 어우러질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 결국 '사람'이었다. 성취감을 배고 앓아누우셨다는 주최측도 그 힘으로 이 일을 해내셨을 게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든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

살아있는 마을과 대안학교의 상생

큰 즐기는 여기까지. 어찌지 못하고 내 선에서 내친 자 잘한 즐기들도 많았다. “지구의 날, 마을플로깅”은 꽤 많은 분들이 함께 돌면서 없는 쓰레기 찾느라 눈에 불이 났었지만, ‘손국천지킴이’가 꽃 심을 때는 동천동 주민들께만 요청했고, 동마넛에 뜨는 수많은 행사들을 학교 일정 염두하며 골라서 공유하면서도 못내 아쉬운 것들은 애들 데리고 따로 가보기도 했다. 밤토실 백일장은 따스했고, 기후위기 마라톤은 가슴 뭉클하게 시원했다. 어딜 가든 나는 몰라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게 이제 놀랍지도 않다. 연대일꾼으로 살았던 1년이 개인적으로는 이래저래 길게 갈 모양이다. 그러면서 확신한 건 동천동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재미있을 마을이라는 것. 우연히 흘러들어온 동네에서 노년을 본다니, 이만한 수확이 있을까. 그렇게 내가 빨빨거리고 다니는 와중에 아이들도 어느새 소옥 스며들어와 있었다.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고, 대안학교 또한 마을과 함께 자란다.” 수지꿈 공동체의 우리는 안 그래도 참 늘 바쁘다. 주말이 뭐야 싶게 캘린더는 이미 너도나도 포화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밖을 보시라. 수지꿈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가장 큰 단위의 가치는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세상공감’이지 않은가. 어느틈에 마을에 스며든 아이들은 자연스레 그 가치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라. 올해 진행할 여력이 없었던 ‘기후정의행동’을 비롯해, 학교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연대에서 소개하는 활동들은 어찌 보면 학교의 직접적인 생계와는 관련 없어 보이고 따로 품을 내야 하는 부업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구성원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 우리가 선택하고 몸담은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운동이 제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 시작을 이 마을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어차피 담 없는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아닌가. 학교 문만 열고 나가면 아주 근사한 마을이 두 팔을 벌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 ▶ 연대에서 올려드리는 글들 잘 확인해 주세요. 보고 꽃히면 손잡고 가보는 겁니다.
- ▶ 마을 동아리에 들어가 보세요. 노래, 연주, 글 쓰기, 그림, 캘리, 바느질, 목공 등 원하는 게 무엇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하다보면 얼마 안가 바로 무대에 서고, 글을 쓰다보면 바로 책을 내는, 마법 같은 일상이 열릴 거예요.
- ▶ 같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반응이 바로 오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천천히 조금씩 더 멀리 함께 걸으면 되니까요.

마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해였습니다! 살림일꾼 마음의 따뜻한 2023년

글 _ 마음

어느덧 2023년 끝자락에 있다. 올 2월, 나무에게 살림일꾼 인수인계 받았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말이다. 오랫동안 부모님의 살림에 얽혀 살았기에 살림 초보 딱지를 벗지 못한 내가 살림 일꾼이라니.. 더군다나 워낙 잘 압박하고 매사에 딱쳐야 움직이며 살았던 나인데, 혹여나 중요한 학교 일을 빵꾸내면 어쩌지하는 걱정도 한가득이었다. 그래도 첫 발을 용기 있게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혹여나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채워주고 감사줄 주변의 든든한 지원군들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랬다. 일년동안 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 정말 그랬다!

외부 행사에 먹거리를 팔러 나갈 때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미리 식해도 담가야 하고, 청도 만들어야 하고, 텀블러 세척도 해야 하고, 행사 당일엔 일찍부터 모여 마무리 작업에, 현장에서는 갑자기 물려드는 손님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든다. 참 신기한 건 소수가 모이면 다수가 모이건 일은 착착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아마들의 일머리와 센스가 탁월함을,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감탄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분명히 힘든 일을 하러 모인 것인데 모이면 어찌나 즐거운지..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몸은 녹초가 되는데도 마음은 행복했다!



일년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이었다. 이러니 마음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모두 감사합니다♡

문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경험해 보시라! 홍보일꾼 제인의 일꾼 생활기

글 _ 제인

공공 동체의 공도 모르고 입학한 지 어언 4년 차, 워든 부딪히며 체득하는 스타일이라 사전 공부, 탐색 따윈 없었다. 이리저리 치이고 굴러다니다가 어쩌다 일꾼까지 하게 된 2023년.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홍보라니. 자기 PR 시대가 도래했다고 대학교 때부터 들어왔지만 난 입사지원서에 넣는 자기소개서도 대필시킨 사람인데... 하긴 집안 살림도 잘 못하는 내가 살림일꾼을 하겠나, 현금 들고 계산대 앞에 멍하게 한참을 서 있는 내가 재정을 하겠나.. 홍보일꾼은 한 번씩만 바쁘면 된다는 전년도 홍보일꾼 올챙이의 말에 솔깃해 이따금씩만 바쁘면서 다른 일꾼들에 묻혀 스르륵 넘겨볼까 하는 얄은 잔머리를 가동했더랬다. 시작 초반부터 홍보&연대 콜라보를 외쳤지만 어디로 봐도 연대일꾼 비아의 활약에 얽혀 덕을 많이 보았다. 묻혀서 스르륵 넘겨볼까 했던 나의 잔머리가 통했던 날들이랄까... XD

1년간 학교 홍보를 위해 했던 행사들을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지꿈 오픈하우스’라고 하겠다. 전례가 없는 행사여서 머릿속으



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도 했고 많은 학교 식구들의 도움을 받은 행사라 행여나 잘 진행되지 않을까봐 제법 긴장도 했었다. 하지만 다녀가신 분들의 반응을 미루어 보아 비록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가 아이디어의 시초였지만 수지꿈스럽게 잘 치렀다고 생각한다. 오픈 하우스도 입학설명회도 모두가 내밀어 준 손길로 가능한 것이었다. 승무복가락으로 방문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우리 아이들, 고철의 설명회 시간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 마음을 모아 함께 했던 일꾼들, 선발위원회, 각자의 자리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홍보소위!!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준 올챙이, 수지꿈 멋진 영상은 다 만드는 다재다능와디, 홍보&연대 콜라보를 가능하게 해준 비아, 조용하게 강한 하이밍, 감각 만점 사진 찍어주시는 까비,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 길냥이. 언제나 즐겁게 함께해 주신 우리 소위 사...사랑합니다!

한 해 동안 일꾼을 하면서 나와 내 아이가 학교에서 누리고 있던 상당한 부분들이 절대 당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의 노고가 녹아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꼈다. 또한 다른 일꾼들 덕분에 더 넓은 사교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떻게?? 문지마시고 경험해 보시라 권하고 싶다. 내년 운영위들께 미리 감사 인사를 보내며 전 이만~~



영구터전부터 별관까지 이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어디랴! 너로의 미션 임파서블: 수지꿈학교 고택년용 별관 만들기

정리_ 제인

PART ONE



었습니다. 뭐가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척 좋은 월세로 공간을 계약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운은 여기까지. 어째 잘 흘러간다고 했어요. 개학을 3주 남긴 어느 토요일. 엄마 아빠들이 달라붙어 쓰고 닦아 전 임대인의 흔적을 떼어냈습니다. 각종 시트지로 가득했던 전면 유리창이 완전 말끔해졌습니다. 싱크대도 주문해다 직접 설치하고요. 청소하면서 하나둘 드러난 문제가 있었으니. 전 임대인이 전기료를 안내 한전이 계량기를 떼갔고! 양변기를 교체하려다 소변기 배관에 양변기를 얹혀놨다는 걸 알게 됐고! 무엇보다 양옆 상가와 얇은 가벽 하나로 막혀있어 옆 상가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릴만큼 소음에 취약하더라는 거...

학교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여의치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외부로 연결되기 쉬운 고기초 인근에 작은 별관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택년이 쓸 별도 공간의 필요에 대해서는 몇 해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실행하게 되었지요. 부족한 본관(?) 공간 때문이기도 했고 저중학년과 고택년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신비감(!)이 피어나길 바라며 무엇보다 고택년 학생들이 세상과 보다 자주 연결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지요. 여러 부모들이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고기초 인근에 작은 상가를 얻



편히 쓰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소소하게 수선하고 비품을 좀 사도 넉넉했던 예산을 믿고 벽에 붙이기만 하면 되는 방음패드를 알아봤는데, 헉... 양쪽 벽 전체 붙이려면 자재값만 160여 만 원! 궁리 끝에 두꺼운 단열재를 붙이고 틈새는 폼을 싸서 밀봉하기로 합니다. 그 위로 각목으로 틀을 짰 다음 석고보드로 마감. 자재값은 70만 원 선으로 떨어집니다. 시공은... 부모들 몫입니다. 사람 부르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주말을 반납한 아빠들이 집에 있는 공구와 빵칼을 들고 나와 두꺼운 단열재를 자르고 붙입니다. 생선 처



음 해보는 일이니 속도는 더딜밖에요. 한 것도 없는데 점심 먹으렵니다. 엄마들이 준비해 준 부침개와 탁주 한 사발 그리고 라면에 햇반을 말아먹고는 다시 달려들었으나, 단열재 붙이는데만 하루가 다 갑니다. 각재로 상 걸고 석고보드 치는 작

업이 가능하니까 거의 한 달을 꼬박 투입한 끝에 결국 완성했습니다. 고택년 부모들은 돌아가며 전부 다녀간 것 같네요. 특히 한 주 뒤면 학교를 떠나는 아빠가 오셔서 마지막까지 손보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오랜 시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온 동지(?)들이라 힘빼고 힘줘야 하는 때를 아는 노련함을 갖추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통했던 것일 테고요. 7년 차, 8년 차, 9년 차가 되어 닳고 닳아(?) 설렁설렁 지내는 것 같은 고택년 부모들이 놀라우리만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피어나는 '저력'에 대해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업 때문에 그 다음 주 주말 역시 예약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마쳐야 사용할 수 있으니 미룰 수도 없습니다. 가까이 사는 졸업생 부모로부터 타카와 콤프레셔를 빌리고 학교 목공실의 원형톱을 가져다가 재고 켜고 박고 붙입니다. 하아... 이거 끝은 나는 건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가운데 자바라를 달아매는 작업은 난이도 최상. 천정이 샌드위치 판넬에 석고보드만 달랑 붙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바라 무게가 상당한데, 그냥 나사 박아서는 될 게 아니었으니까요. 좌우 끝으로 지나가는 철골을 찾아 구멍 뚫고 고정하되 그 사이로 토우 양카를 촘촘히 박습니다. 천정을 향해 하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죠. 네 명이 매달려 공공댄 끝에 결국 짱짱하게 달아내더군요. 별관 공사를 마치고는 '뭐야, 이게 왜 돼?', '이제야 말하는 건데, 진짜로 될 줄 몰랐어' 라며 마주 보고 어이없어하던 모습도, '이 정도 품질이면 일당 쳐줄 테니 우리 집 좀 고쳐달라'던 어느 엄마의 너스레도 떠오릅니다. 사흘 하고도 반나절, 주말에만 작

학교를 만들고 영구터전을 세웠던 15년간의 지난한 과정을 겪어낸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수지꿈학교 공동체의 저력이 지금 저중학년을 지나 새로 합류하는 후배들로 면면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별관은 영원하지 않고, 고택년 별관은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며, 그 별관과 한바탕 씨름할 이들은 바로오~~ 뽀뽀바 뽀뽀바~ 띠로리이~ 띠로리이~ 띠릿~ ㅋㅋ + 그래도 영구터전 짓기, 학교 이사하기 같은 엄청난 건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막이래...^^)



엄마들도 덩달아 행복하다! 아빠와 아이가 즐거운 아빠모임

Special thanks to.
전임아빠모임장 공기차이
2023년 운영진 아빠들
2학년 3학년 아빠들

올 한 해 아빠모임 열일했다! 아이들과 무려 두 번이나 여행을 다녀오다니! 아빠모임을 맡은 무아에게 가볍게 한마디 부탁했는데 진지한 한 장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소식지의 퀄리티를 한층 높여주고 일 년동안 수고해준 무아에게 2023년 아빠모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_ 무아

내 아이의 친구들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왜 대안학교를 보내요?”라는 주위의 질문에 저는 “혹시 아이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을 아시나요?”라고 되묻곤 합니다. 제가 공동체 대안교 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며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비아가 아이들이 하루 보낸 이야기와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 제 머릿속에는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마치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 다. 하지만 지금은 내 아이의 친구들이 어떤 아이들 인지,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결속력의 핵심은 **아빠 참여 학교**, 교육이라는 환경, 그리고 상

대적으로 관계 지향성이 높은 엄마 들은 자연스럽게 엄마들과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반면 아빠 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 는다면 아빠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 참여가 높으면 그 공동체에 많은 장점 들이 존재합니다. 엄마 참여도는 아 빠의 참여도와 큰 관계가 없는 경우 가 많지만, 아빠 참여도가 높으면 엄마 참여도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 다. 그리고 그간 경험적으로 아빠 참여가 높은 가구는 공동체의 다양 한 갈등으로 인한 중간 탈퇴가 적었 던 것 같습니다.

엄마 중심 공동체 수지공학교
우리 학교는 학교 운영진 비율, 학부 모 대표 등을 보면 엄마 중심 공동 체입니다. 학교라는 환경과 초기 학

교 설립 기반이 반일제 공동육아, 그리고 그간 육아와 교육은 엄마 몫 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 추 측합니다. 하지만 아빠들의 육아 참 여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우리 학교도 맞벌이 가구들의 비중이 높 아지는 현실에서 변화의 바람이 필 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아빠 참여 확대의 기반, 아빠모임
그래서 올해 아빠모임장을 맡으며,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 첫째는 아빠모임 공식화 입니다. 카페에 아빠모임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어 차기 아빠모임장이 올해 루틴을 어느정도 참고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화 하였습니다. 두 번 째는 아빠모임 참여 권유도를 높 였습니다. 그간 밴드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하던 아빠모임

방을 일반 카카오톡 방으로 만들고,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일괄 초대하였 고, 신입 아빠들에게도 카카오톡 방 참여 권유를 좀 더 의무에 가깝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 관계가 불편한 아빠들에게 죄송 하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리 고 마지막은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인 아빠모임 저번 확대를 위한 “아 이와 함께하는 아빠모임”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아빠모임

아빠모임 기본 컨셉인 술과 함께하 는 아빠모임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 니다. 이 모임은 아빠들 간의 보다 깊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 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도 학교 모 임을 제외하면 1년에 술 먹는 날이 한 손에 꼽을 정도이고, 학교 행사 에서 무알콜맥주와 탄산음료의 비 중이 높아지는 현실에 다른 컨셉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아이와 함께 하는 아빠모임’ 이었습니다. 술자리와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 게 아이를 매개로, 라이트한 관계로 우선 아빠들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 결 과가 1학기 아빠캠핑과 2학기 아 빠여행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행복한, 엄마는 손 꼽아 기다리는 아빠캠핑 아빠여행
1학기 아빠 캠핑 기획 의도 : 아빠의 육아 효능감, 엄마의 육아 독립
1학기 아빠캠핑을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아빠에게는 육아효능 감을, 그리고 엄마에게는 육아 독립 의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마 다 다르겠지만 아빠와 아이 단둘이 여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엄 마는 아빠에게 아이를 홀로 맡기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빠 들은 아이와 단둘이 여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캠 핑을 통해 아빠는 나 홀로 아이를 케 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엄마는 아빠에게 아이를 맡겨도 된다는 안 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 로 아이와 아빠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리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아빠들, 그리고 내 아이 친구들과 함 께 지내며 서로를 빠르게 알아갈 수 있어 이후에 학교가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2학기 아빠 여행 기획 의도 : 편입 가구의 참여, 아빠와 아이의 관계 다지기
2학기 아빠여행은 1학기 아빠캠핑

때 참여하지 못한 편입가구와 친교 의 시간을 갖고, 아빠 캠핑 이후 아 빠와 한번 더 단둘이 여행을 통해 관계를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 었습니다. 아빠캠핑 만큼 쉼 시간 을 보내진 않지만 그래도 편입 가구 와 기존 가구가 좀 더 친해질 수 있 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빠캠핑 때 걱정으로 아빠와 아이를 보내지 못 했던 엄마에게 한번 더 자유의 기회 (?)를 드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엄마 가 본인의 자유시간을 위해 아빠여 행을 보내면 반강제적(?)으로 아 빠모임에 참여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I"여도 괜찮아
MBTI "I" 90%, 술자리와 운동 을 좋아하지 않 는 저와 같이, 아빠들 관계에 서 태생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 에 있는 아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



다. 혹시 이 글을 보는 저와 같은 아 빠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우선 나오세요! 술 안마셔도 괜찮고 말 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술 값 덜 나와서 좋아하고 자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다고 더 좋아합니다! 아빠모임에 많이 참여 할수록 배우 자와 돈독해지고 아이들과 가까워 집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몸을 내던 지세요~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 합니다!



한번 더 뭉쳐야 할 때가 왔다 "우리도 조례활동가가 될 수 있다가요?"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었지만 모든 것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2023년 과도기를 겪으며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현장은 분주하다. 거기에 아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쩌보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주어야 할 연대 조례이야기를 맹달에게 들어 보았다. 글 _ 맹달



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원을 받으면 학교 운영비에 도움이 된다는 사

안녕하세요? 수지꿈학교의 고인물 최고학년 9학년은조엄마 맹달입니다.

6년 전 수지꿈학교 연대일꾼을 하며 경기지역 대안교육 협의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손배님들을 따라다니며 “맞아요! 맞아요!” 추임새를 넣는 위치였는데 시간이 흘러 경기지역 대안교육 협의회 사무국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게는 이 활동들이 어렵기만 합니다.

은조가 입학했던 첫 해 가을 운동회에 시의원이 인사를 왔는데 왜 대안교육 현장에 정치인이 오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라떼 이야기지만 은조가 입학했을 때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거거든요.

수지꿈학교에 조례팀이 생기고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백, 자작나무, 부엉이 등이 초선의원이었던 유진선 시의원과 함께 학생이라면 똑같이 급식 먹을 권리가 있다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용인시에서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급식을 먹을 수 있

실을 알고 나니 법적 근거를 만드는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 때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매달 월례 회의를 통해 경기지역의 대안학교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대안교육 연대에서는 전국의 대안학교 현장들을 만나고 있어요. 늘 대안교육은 위기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올해가 과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22년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드디어 우리도 학교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학교 현판이 생기고 우리 얼마나 기뻐했어요? 푸른빛 미래를 생각하며 있었는데 현실은 경기도와 교육청은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 이쪽으로 가는게 맞다, 저쪽으로 가는게 맞다, 지원은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교육청은 돕고 싶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 법안은 생겼지만 지원 근거는 없고, 지원금은 삭감되고 정말 답답한 해였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고, 운영이 어려워 해산한 학교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어

요. 시장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원받던 지원금이(프로그램 지원비) 전액 삭감되거나 50퍼센트 이상 삭감된 현장들은 고스란히 그 비용이 학교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지니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어요. 어느 현장은 1인 시위를 하고 어느 현장은 적극적으로 시도위원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어디 학교는 수익사업을 통해 얼마를 벌었다, 무슨 수익 사업을 해야 적자 분담금을 덜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하고 지원 근거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하니 경기대협 정책위(우아가 정책위 활동을 하고 있지요)는 여러 도 의원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올해는 여러 활동들이 토론회로 이어지고(장한별, 서성란 의원) 의회에서도 양쪽 정당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활동들이 우리들의 목마름과 학교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니 참 멋진 우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 말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반대 없이 잘 통과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 운영비에 대한 우리들의 근심을 한 조각 덜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파주자유학교에서는 고등과정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수업으로 조례를 만들어(첫 시작은 챗GPT를 통해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 시의원들에게 보내고 그 중 응답이 온 의원들과 함께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12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이 조례에는 교사 처우비 등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파주자유학교 친구들 소식을 접하고 고양시, 의정부에서도 조례팀이 꾸려졌다고 해요. 우리 용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곳인데, 우리 수지꿈도 한번 더 뭉쳐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시작하게 해준 수지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글 _ 오늘

코로나 시국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는 기존 어린이집 친구들과 같은 학교, 같은 반에 편성되어 학기 초에는 나름대로 학교에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학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학교 가는 게 싫다며 늦장을 부려 지각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몸이 아프다며 양호실에 가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터는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를 대며 등교를 거부하였습니다. 일찍 일어나 학교 가는 게 힘들고, 수업시간 40분 동안 앉아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아이가 없으려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무기



력해져 가는 건지 등교 시간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잤습니다.

간신히 자는 아이를 깨워 씻기고 밥을 떠 먹여 교문까지 데려가도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마중 나와 데리고 들어가려 했지만 꿈쩍하지 않고 교문 앞에서 버티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석과 지각이 반복되면서 담임선생님과 의견을 나눈 결과 학교를 옮겨 보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서 활동이 많고, 수업시간이 경직되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좋아할 만한 학교를 찾아도 지역이 멀어서 학교를 다니려면 가족이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탄천으로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우연히 길 옆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지꿈학교에서 입학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회 날짜는 이미 지난 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과 유튜브로 수지꿈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학교 홍보 영상에서 아이를 수지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대표교사 여경선생님의 말씀 중 수지꿈 학교에서는 행복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 가려고 한다는 교육 철학 이념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직접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막길을 따라 가보니 가운데 중정이 있고 걸터앉은 마루가 있어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신편입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추가모집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집에서 멀지 않아 가족이 헤어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학부모 면접과 아이 체험과정을 거치고 편입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난 1년간 아이와 같이 겪었던 아픔과 힘들었던 시간

들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무심코 내민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수지꿈학교 편입은 우리 가족이 평온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습니. 2학년으로 편입한 아이는 자기 성향대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학식 날 형님들이 가마를 태워 입장하면 재학생들과 선생님, 학교 관계자분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식을 해주었고, 빙그레 선생님이 공주님으로 깜짝 변신한 모습을 보고 모두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입학식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으며, 새롭게 입학한 아이들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자신들의 입학식을 즐겁게 체험했습니다.

수지꿈에서 배우고 있는 독서, 말과 글, 수학, 살림, 예술 수업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배우는 공부라 아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하면서 우리 아이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부모 곁을 떠나 잠을 자본 경험이 없다보니 학교살이를 할 때는 중간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지만, 들살이를 할 때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과 같이 체험을 끝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의 환한 표정을 보고 코끝이 찡할 정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준 아이에게 용감한 어린이 상장과 상



품을 만들어 주었더니 엄청 기뻐하였습니다.

아이와 아빠가 처음으로 경험한 캠핑과 템플스테이 아빠여행은 아이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올 한해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이는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돌봄은 동생, 또래친구, 형, 누나, 여러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는 여기에서 친구들과 관계 맺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소통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경험하고 배우며 사회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변에는 사회성 발달이 부족하여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힘들어하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지꿈 돌봄교실은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공동체입니다. 그 이면에는 아이들

과 학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여백과 여러 일꾼들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하며 학교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수지꿈에 와서는 스스로 등교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갑니다. 가끔 숙제 내어준 과제물 목록을 깜빡하고 학교에 두는 날도 있지만 잊지 않고 가져오는 날에는 스스로 숙제도 잘 합니다.

아이의 눈 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봐주시고 이해해주며 믿고 기다려 주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가끔은 투닥거리지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끌어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아직은 서툴지만 서툰대로 대해주는 아우들이 있습니다. 보고 배울 수 있는 멋진 형들과 누나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마음 따뜻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아이를 보니 이제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인 저희도 교육 일꾼들이 다양하게 준비한 신편입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수지꿈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오늘도 아주 가벼운 가방을 메고 산 밑에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 오르막길을 뚝뚝뚝 걸으며,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뒤돌아서 엄마가 갔는지 확인해 보면서 스스로 학교를 갔습니다.



1학년 준수네 가족, 이렇게 수지꿈학교에 스며들다

글 _ 토끼



운전연수는 고기리에서 푸르른 숲 속 아름다운 학교에 반하고, 아이들의 웃음에 반하여 수지꿈에 오게 되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 작년 입학 설명회 일정이 정해지고, 입학 설명회 전 학교를 한번 둘러 보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찾아왔었던 수지꿈학교. 사실 학교가 너무 굽이굽이 산골 속에 있어 아이를 등학교 시키는 일이 무척이나 걱정이었다. 낯선 산길에 외길에 간혹 비포장도로까지 보이는 길이라니... 고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정도 길은 잘 되어 있는 길이라 하셨지만, 고기리 초입에 있는 주택도 너무 산골이라며 보지도 않던 나에게 수지꿈은 정말 굽이굽이 산골에 있는 학교였다. 아이의 정식 등교 전 많은 걱정이 있었다. 비오는 날은 어떻게 하지? 눈이라도 오면 등교를 포기해야 하나... 등교하기 전 나는 운전 연습을

위해 수지꿈학교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다. 아직 눈이 오는 날의 수지꿈 등교를 겪어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딜 가든 여긴 등갯길보다 길이 좋네!! 라는 운전 자신감이 점점 높아져간다. 초보 운전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운전 연수는 고기리에서. **둘째도 갑니다. 어디에? 수지꿈에** 얼마전 나는 준호를 7살에 수지꿈에 입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준수가 입학한 이후로 여러 분들께 준호를 7살에 입학시키라는 권유를 많이 들어왔지만 (가벼운 권유였지만...) 마냥 어린아이같은 준호를 7살에 입학시키는 일은 나의 계획엔 아예 없는 일이었다. 사실 준호의 조기입학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나의 수지꿈 적응이 힘들었던 탓도 있었을 것이다. 준수는 입학을 하기도 전부터 원래 수지꿈에 다니

던 아이처럼 잘 지내는 반면 나는 모든 모임과 모든 행사가 힘겹기만 했다. 입학 하기 전 공동육아 경험이 없어 걱정을 하던 나에게 우리 학교 학생의 절반은 공동육아를 하지 않은 아이들이라 하며 용기를 주던 아이들이 나뻘고 모두 공동육아를 하

던 아이들이었다. 공동육아와 아닌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겠냐 하겠지만,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회장을 하던 내가 아이들의 라이딩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에 1년에 기껏해야 2번 정도 1시간 정도의 짧은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던 생활을 하던 내가 거의 매주 학교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학교 일에 빠져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 나에게 큰 생활의 변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는 1학년이 아니라 7학년인것처럼 적응을 잘했다. 봄의 따스함을 마음에 담고, 여름의 발랄함을 튼튼한 다리와 예쁜 눈에 담았다. 가을의 상쾌함을 바람에 흩날리는 머릿결에 담고, 겨울의 싱그러움을 조그마한 두 손에 담았다. 그런 준수를 보며 나는 준호도 수지꿈에 보내기로 하였다.

아이와의 첫이별.

입학할 때 학교살이, 들살이, 걷기여행 등등... 학교 행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들긴 했지만 들살이가 무엇인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아이와의 첫 이별, 학교살이에 대한 공지가 나왔다. 준수는 엄마가 동생을 출산하러 갈 때 할머니 집에 있었던 일 빼고는 엄마와 헤어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였다. 준수는 학교살이에 대한 기대로 며칠전부터 종알종알대며 이야기를 쏟아 냈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학교살이를 앞둔 일주일 전부터 눈물로 밤을 새우고, 드디어 학교살이 날... 준비물이 빠진 것이 없는지, 준수 컨디션은 괜찮은지 꼼꼼하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체크한 뒤 눈물의 이별을 했다 (토끼 혼자만의 눈물의 이별). 그렇게 집에 와서도 온통 준수가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



다가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이게 웬걸? 준수가 엄마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며 빨리 데리러 온 엄마를 타박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눈물흘리던 나의 걱정과는 다르게 준수는 무척이나 씩씩하고 즐겁게 첫 외박에 성공하였다.

그 이후 들살이와 걷기여행을 무사히 지낸 지금의 나는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 준호도 함께 하게 될 학교살이가 무척 기대되는 수지꿈의 평범한 엄마가 되었다.



수지꿈에 스며들다.

준호의 수지꿈 입학을 위한 학교체험 마지막날의 일이다. 준호는 추가지원 기간에 원서를 접수하여 1학년 교실에서 빙그레와 준수와 함께 학교체험을 했다. 빙그레께서 준호의 학교체험 첫날부터 점심식사를 도와주셔서 한결편하게 학교 체험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집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빙그레께 전화가 왔다. 시간을 보니 벌써 1시 반이다. 이런... 준호의 하교 시간이 12시 반인데?? 허겁지겁 열린 가겠다고 하니 빙그레께서 웃으시며 준수 하교할 때 준호도 같이 하교 하라고 배려해 주셨다. 빙그레께서 정신없이 민망스러운 모습으로 하교를 하러 간 나에게 이제서야 토끼가 학교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라며, 정신나간 토끼를 수지꿈에 적응 완료된 토끼로 포장해 주셨다. 그렇게 나는 수지꿈에 적응했고, 여전히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만화로 보는 수지꿈 생활기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글,그림_하이밍

아이가 존중받고 사랑을 나누는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



마음 한 편을 누릴 수 있는 자연속에서 친구들과 많은 것을 경험하고 토론하며 부딪쳐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3년을 돌아보니 나 또한 이 안에서 존중받고 격려받으며, 토론하고 때론 부딪치며 사랑다운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고,



홍보와 연대에 받을 걸친 탓일까 밥쟁이알창에 속해서 일까 머내 마을을 이끌고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이 커져서 쌓여 가고 있었다.



아이를 사랑많은 학교에 보냈을 뿐인데 나는 어느새 이 매력적인 학교와 마을과 사랑에 빠졌다. 또다시 3년이 흐르면 그때의 나는 또 어떤 마음일까?궁금해진다.

승무복가락의 후유증

여울이는 2학년 빙그레선생님의 반을 거지면서 승무복가락을 연주하게 되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지고 웅장한지.



긴장될 법한 무대 위에서 당당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나가는 모습에 아이들의 팬이 되어간다~



오~우리애들 잘한다!

그러나 모든 것엔 양과 음이 있는 법...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두드려 대더니



급기야 내 등도 점령당해버렸다...



내 등은 좀 아니지않아?

동동탁 동동탁!

다들 멋지고 난리!

우리학교에는 현직 전직 다양한 직업의 엄마들이 있다!



절대음감 피아노선생님!

전직패션디자이너!

외국인상대 한국어선생님!

한문선생님!

그림책일러스트 작가!

오래동안 같은 직종에 있는 하이밍에게겐 정해될수 없던 직업에 종사하는 엄마들이 멋져 보이기만 한데..



멋있어~!

훈남 우리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하이밍직업도 특이해요~

엥?그래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느긋의 여러모로 좋은 생활을 담은 이야기! <여러모로, 좋다> 북토크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함께 녹아져있는 느긋의 책이 발간되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느긋의 출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글 _ 개구리



어느새 6년의 시간이 흘렀다. 초등학교가 된 첫째 조희가 어색해하며 꽃가마 타고 입학식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지나고 이제 키도 훌쩍 커버리고, 내년이면 중학생이라는 타이틀이 적용되는 나이가 된다. 그 사이 수많은 가족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지냈고, 그 중에는 6년 세월을 오롯이 함께한 가족들도 있다. 한 해 한 해 생활하면서 이리저리한 곳에서 친분이 생

긴 가족이 조회와 함께 6년을 지낸 친구 중 한 명인 하온이네였다. 하온이의 엄마 '느긋'이 수지꿈학교에서의 일상을 하나의 책으로 지어냈다. 6년 간의 시간 동안 '대안교육'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겪었던 아이와 가족들의 일상, 그리고 그 6년의 세월을 선택하기 위해 했던 고민의 시간들을 간략하게 엮어낸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도, 함께 겪었던 공감되는 또 다른 가족들과의 일상의 이야기들도 담겨 있었다. 책을 읽어 내려가며 그려지는 지난 시간들의 에피소드들이 세월이 흐르고 다시 열어본 졸업 앨범처럼 따스했다.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사진첩에 있는 옛 친구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친구와의 지난 시간이 떠올려 지듯이 기억이 새록새록 했다. 느긋의 기록에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함께 녹아져 있었다.



책이 발간되었고,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신나하면서 축하를 주고 받는 자리에서 누군가 '북토크'를 하자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왈자지껄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이 말 한 마디는 결국 큰 결과로 이어졌다.

북토크를 하기 위한 실제 준비를 하고,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갔다. 장소를 섭외하고, 참석할 사람들에게 홍보를 진행하고, 행사를 재미있게 해보기 위해 후원사도 섭외하고 축하공연도 준비하였다. 책 속에 세월을 함께 한 가족들과 수지꿈학교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세월을 공유하는 많은 가족들이 자리를 채워주었고 느긋의 출간을 축하해주는 오랜 지인들

도 함께 자리해 주었다. 자그마한 행사였지만, 언제나처럼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함께 지내온 시간들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한 권의 책 속의 이야기들로 정리가 되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 다시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지내온 시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다.

북토크 라는 형식을 빌어 한 자리에 모여서 느긋의 오랜 노력의 결실에 축하를 전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아낌 없는 격려를 해주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각자의 사연으로 선택한 생활에 대한 삶의 안정감을 느끼며 온기를 서로에게 전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듯 하다.

다시 한번 느긋의 새로운 도전에 무한한 응원을 보내며 새로운 '여러모로, 땡땡' 시리즈를 기대해 본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모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2023년의 전체부모교육 주제는 '공동체'였다. 저, 중, 고학년 부모가 함께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9학년제임에도 학년별로 조금 나뉘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전체 구성원을 조별로 나누어 조별 교육 모임을 시작했다. 글 _ 해바라기



1학기 조별 교육 모임으로 영화 '우리들'을 보고 만들레 잡지의 일부분을 읽었다. 그리고 각자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정리했다. 영화에 아이들을 투영시켜 볼 수도 있고 현재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투영시켜 볼 수도 있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영화에 대한 받아들임이 달랐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즐거움과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지나온 날들의 아쉬움과 좋았던 점을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2학기 조별 교육 모임에서는 수지꿈교육공동체의 참여율을 알아보고 현재의 수지꿈교육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전부터 구성원들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구성원의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은 공통적이었다. 조별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교육시간에 현재의 수지꿈교육공동체가 좀 더 친밀감 있게 지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논의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는 환경에 따뜻한 기억, 추억들이 더해진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수지꿈교육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을 거쳐 나온 결과물!

소위 운영 의무 참여

소위별로 소위 안에서 소그룹 활동지원, 소위별 정기적 모임

만남을 주선했드립니다. 의무 참여

소위와 소모임에 각 가정 한명씩은 의무 참여 할 수 있도록 매칭. 활성화 위해 첫 개설 시 세 가정 이상과 1년 동안 최소한의 활동 횟수 제시/총회 때 소위, 소모임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가입 유도

가족 소모임 활성화 의무 참여

구체적 테마, 방법 등 아이디어 모집, 아이디어 없을시 지역별 모임이라도 개설.

테마 예시/주기적으로 미술관 방문, 아빠와의 산행, 엄마와의 산행, 휴양림 같이 가기, 자전거 타고 한강가기, 화덕 만들기, 목공 함께 하기.

테마를 고를 때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정하기.

테마 정한 후 아이와 부모가 같이 알아보고 아이들과 함께 구상하기.

2024년 좀 더 활성화 될 소위, 소모임을 응원한다.

소모임 활성화를 외치는 수지꿈 가족들에게 우리 소모임을 자랑 합니다!

수지꿈 소모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관심분야를 함께 나누며 수지꿈 공동체를 흠뻑 느껴 보심은 어떨런지.. 2023년은 어떤 소모임들이 있었는지 둘러 보았습니다.

정리 _ 비아, 나디



소풍

누구나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을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바로 장구를 배우는 것이 그런 것 중 하나였는데, 요즘 그 소망을 수지꿈 소모임 '소풍'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박자 타는 것을 좋아해 풍물을 배우고 싶었지만 어디서 가르쳐주는 지도 모르겠고 큰 장구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유난스레 생각하여 쉽사리 용기를 못 내고 있었죠. 하지만 2019년 지역 단오제에서 '소풍'의 활약을 본 후, 잊고 있던 옛 꿈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소풍'에서의 떨리는 첫 시간. 치기만 하면 소리가 날거라 생각했던 장구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이 났었죠. 특히 쇠를 시작으로 북, 장구, 징소리가 한데 어울려 악기 소리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온몸에 전율이 돌기도 합니다. 그 조화 속에 내가 있고 나로 인해 그 조화가 만들어진다는 생각



하면 정말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짜릿함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풍'은 저의 음악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보람찬 공동체 생활입니다. '소풍'의 목적이자 마음가짐인 '공동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다' 라는 문구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소풍'으로 참여한 수많은 길놀이들과 같은 공동체 행사에서 신나는 가락으로 기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치 몇 달을 줄라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된 아이처럼 매주 토요일 연습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구성원들과 눈을 마주치며 길놀이를 하고나면 팡팡 터지는 아드레날린을 느낄 수 있고 함께 했다는 뿌듯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소풍 풍물패'입니다.

_ 생크림

주책

안녕하세요. 수지꿈 소모임 주책에서 노닐고 있는 대추입니다. 첫째를 입학시키며 수지꿈에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갔네요. 대안교육의 길로 들어서더라도 언제까지 남과 다른 길을 가야하나라는 고민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주책의 포문을 연 [대치동]이란 책은 참 좋더군요. 대한민국 사교육의 중심지이자 부동산 시장의 정점으로 대치동을 이야기하면서 시간과 공간, 사람에 대한 면면을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어쩌면 우리 수지꿈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를 통해 도리어 수지꿈을 반추해보게 되고, 중고등 교육에 대한 여러 식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책 대신 선택한 [다음 소희]는 실적주의, 수치로 인간을 가능하고 평가하는 통계주의가 어떻게 삶을 망가뜨리는지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어쩌면 '다음 소희'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수치가 아닌 온전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한편 올해 챗GPT 등 인공지능이



제인 _ 책, 술, 사람, 세상을 품고 있는 주책!
답이 먼저냐, 말이 먼저냐 궁금한 분은 오셔서
확인해보시길!

쌍성 _ 매일 같은 일상에 지칠 때,
시나브로 펴본 책 속의 작은 즐거움,
오래된 종이 냄새, 오래 보고픈 사람 냄새.

비아 _ 술 한잔에 인생을, 책 한권에 마음을,
완독 두려워 말아요, 서로의 빈 페이지를
따뜻이 채워주는 사람들의 주책입니다.

와디 _ 독서 루틴 만들고 싶다면?
주책이 답!

크게 화제가 되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른 책이 [초예측]입니다. 유발 하라리, 재레드 다이아몬드 등 세계적 석학과의 대담을 묶은 책이었지만 기대만큼 내용이 깊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에 읽은 [세계 끝의 버섯]이 어려웠지만 더 많은 영감을 주었죠. 어차피 미래는 예측한다고 예측대로 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 속에서 송이버섯 혹은 송이버섯의 주변인들 마냥 살아가는게 혹은 살아가는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책을 통해 세상을 읽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어느덧 편안함과 즐거움 속에 머무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껏 주책에서 노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_ 대추

민들레



민들레 모임 어떠셨나요? 소감 한말씀해주세요. 잡채, 김치찌개, 샐러드, 김밥, 부침개, 목사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동안 먹었던 맛있는 음식 메뉴!!^^ 대안 학교에 보내면서 때때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민들레 모임 덕분에 방향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민들레책을 읽고 학년을 초월해서 주제를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마무리는 함께 식사하며 정을 틔우기도 합니다. 2024년 민들레 모임을 이끌어주실 이꿈이를 모집합니다! _ 해바라기



막걸스

같이 빚어도 집집마다 술 맛이 다르답니다. 2023년에는 한 번 빚었으니, 2024년에는 두 번 빚어보려구요. 막걸스 함께해요! _ 나디

말구리 고개 넘어
오르막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막걸스
길은 외줄기
수지 삼십 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막걸스



실과함께라면

동네 맘카페에 있는 뜨개모임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다. 한참을 기다려도 들어갈 수 없었고 모임글만 보며 아쉬워할지 여러 달... 그냥 내가 뜨개모임을 만들어볼까?! 생각하며 또 여러 달이 흐르고, 내가 뜬 가방과 소품을 보며 학교 엄마들이 배우고 싶다 하는 말을 왕왕 듣게되며 진짜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다. 학교 행사들이 휘몰아치고 정신을 차리니 10월말 드디어 학교카페에 글을 올렸다.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적당한 인원이 모였다. 혼자 가방만 주구장창 뜨다가 여럿이 함께 모이니 아이디어가 넘친다. 다양한 작품을 서로 소개하며 함께 떠보자는 의지를 불끈!! 뜨개질하다보면 완성하지 못하고 손을 떼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잠시 손을 놓았다



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뜬 걸 공유하면 욕심이 나서 다시 바늘을 집어들게 된다. 서로 응원하고 칭찬하는 요런 맛에 그렇게들 삼삼오오 모여 뜨개를 하나보다. 뜨개로도 계절을 느낀다. 크리스마스트리와 오너먼트도 만들고 포근한 목화송이를 떠서 나뭇가지에 붙여 인테리어화병도 만들고, 내년 봄엔 블랭킷을 떠볼까? 여름엔 어떤 소재와 색깔의 가방을 떠볼까? 뜨개 카페에도 같이 가볼까? 다른 이들의 아이디어들도 무척 기대된다. 뜨개질하다가 먹는 라면도 꿀맛~! 서로 조금씩 가져온 간식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즐거운 뜨개생활 같이 하실 분들 언제든지 환영해요^^ _ 소라게

<마음 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로망인 뜨개! 뜨개모임과 함께라면 실현가능한 낭만이 된다> - 제인 <한번 시작하면 쉬 놓을수 없는 뜨개질의 매력에 푹 빠졌답니다!

뜨개모임에 오시면 손과 입이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는 콜라보레이션을 경험하실수 있어요~! 힐링 그 잡채!> - 마음 <마음과 삶을 엮는 뜨개모임. 함께 뜨고 풀고 또뜨고~> - 보리 <뜨개의 맛을 채 보기도 전에 라면맛만 봐 버린...> - 비아



홈페이지 제작 이야기 수지꿈 대문이 생겼어요!

글_ 올챙이

www.sujidream.org

22년의 막바지 운영회의 시간,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날 누군가 “올챙이가 만들어주면 되겠네!!!”라고 남긴 한 마디는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작은 보석함이 되어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게 되었고, 대표님의 지지를 받아 5월 살포시 뚜껑을 열게 되었다. 일을 놓은 지 8년여, 걱정도 되었지만 재능 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내주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큰 방향을 잡고, 파트별 담당자를 나누었다. 홈페이지 메뉴 및 콘텐츠를 기획하는 기획파트 / 솔루션 서치부터 제안, 등록, 셋팅을 맡아준 개발파트 / 전체 디자인 톤&매너와 비주얼을 담당 한 비주얼 파트까지. 서로 조율하고 만들어가는 합은 빛났고, 몇 년간의 공동체 생활로 다져진 우리들의 내공을 새삼 실감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글을 쓰며 그 과정을 곱씹어본다.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작업. 다양한 접근을 제

시해주신 지나, 의견도 정리도 깔끔하신 영영, 어떠한 요청도 다 해결해주는 마법사 당근, 다방면에서 늘 도움을 준 역시 대표 나디, 전체적인 글 매무새를 다듬어준 느긋, 메인 영상 촬영을 위해 새벽잠도 반납한 까비, 근사한 영상을 편집해주신 와디, 따뜻한 애정으로 함께해준 비아, 큰 틀을 정할 때 든든하게 받쳐주신 박스비, 긍정의 에너지로 함께한 제인, 신선한 의견으로 도움주신 찰리, 어느 자리에서나 받쳐주는 준비된 하이밍, 그림으로 선생님들의 개성을 살려주신 에이든, 방과후에 생기를 넣어주신 빙그레, 우리만의 클립아트를 그려준 조희까지! 손 내밀어준 그 따스한 마음들이 모여 마무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제 우리 학교도 대문이 생겼다!! 홈페이지를 작업하고 게시하기 버튼 클릭! 게시되길 기다리며 바라본다. 이 대문을 통해 더 많은 수지꿈 가족들이 뚝뚝 문드러주길.

수지꿈학교 소식

2024년 신년인사 글씨물감 만들기
2024년 신년인사 글씨물감 만들기
2024년 신년인사 글씨물감 만들기

모든 아이들이 차기 속도로 차라고 배울 자유를 응원합니다

Why 수지꿈학교

행복한 자유인을 꿈꾸는 9년제 도시형 대안학교

열매 맺고 나누기
매일 자유로운 개인 공간 공동체 삶
학교 밖도 함께해요

수지꿈 소식지
1:1 문의
전화 상담

수지꿈의 정수를 모으고 다듬어, 수지꿈 다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성껏 담았다.

타겟: 수지꿈이 궁금한 외부인
기획: 1) 수지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관심유도 및 정보제공.
2) 수지꿈이 궁금한 분들을 위한 외부 소통 역할.
3) 1:1문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로의 연결 브릿지.
비주얼: 로고 아이덴티티 컬러로 톤&매너를 설정. 데코는 지양하고 메인 영상으로 학교 이미지 시각화.
솔루션: 워스 (PC & Mobile 반응형)

2023을 보내며...

수지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3년의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인생, 내 맘대로 굴러가는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대로 체감한 한 해였습니다. 작년 12월 이맘때쯤,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별 탈 없이 평안한 2023년이 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참 순진한 생각이었지요. (가장 큰 예로 운동회를 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운동회' 편을 참고해 주세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별 탈 없이 지나가는 해는 없다.' 로요. 크고 작은 '탈'로 가득한 우리네 인생이지만 그럭저럭 꽤나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밑바탕에는 수지꿈 구성원들의 '선의'가 든든하게 깔려 있다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듣고 살피며 먹거리를 나누고, 노동력과 시간을 기꺼이 보태는 우리가 수지꿈을 만들고, 수지꿈이 또 우리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준다는 깨달음이지요. 새삼스럽게 그걸 이제야 알았나구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런 선의와 노력이 아이스크림을 더 화려하고 맛있게 꾸며주는 토핑인 줄 알았는데 이제 토핑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그 자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수지꿈이 일과 행사가 많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인 이유를 부끄럽지만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수없이 들어서 익숙한 '교육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건, 그 의미를 그냥 들어서는 알 수 없고 깊게 경험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러니, 망설임의 순간에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일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장담하건대 일꾼으로서 한 해를 지내보면 소위, 소모임, 반모임 등등의 다른 활동에서와는 다른 차원의 연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몰라서, 잘 못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기 어려우시다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지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 밖에요. 하지만 절 보세요. 공동체의 '공'자도 제대로 모르면서 덜컥... 누가 하시던 저보다는 잘하실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라는 말이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함께 하는 다른 일꾼과 구성원들을 믿으면 되더라고요. 점점 손발이 맞아 들어가면서, 정말 되어요. 그렇게 일년이 지나고 나니, 무엇보다 감사함이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옆에 있어 주어서, 함께 해주어서, 마음을 나누어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가지 '탈'이 생기겠지요. 특히 안 오르는 게 없는 물가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거라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지요. 조례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024년에도 안으로 단단하며 밖으로 뻗어나가는 수지꿈의 멋진 모습을 꿈꿉니다. 함께 가지지요!

2023. 12. 5 학부대표단 나디

2023 편지집을 마치며...

수지꿈 식구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만큼 소식지도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두께를 함께 느끼고 싶으신 분들 컴온yo! *_제인*

보통 밤의 학교는 괴담이 먼저 떠오르는 을씨년스러운 장소인데, 꿈학교의 밤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저희도 어쩌면 이 빛에 이끌려 왔겠지요. 언젠가 풍성한 이곳의 일상 이야기도 담을 수 있기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_셋별*

소머즈가 뒹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멋진 소식지가 나오네요! 진두지휘해준 소머즈를 비롯, 올해도 역대급 소식지에 힘 실어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_은비*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소식지 인터뷰를 맡아 진행했어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지나 선생님, 9학년 은조와 민세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_와디*

올해는 어쩐지 더 벅차오르는 소식지입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한 해가 여기에 담겨 있네요. 모두 고운 글 귀한 글 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머즈께는 항상 특별한 감사를 드려요 :) *_하이밍*

교정을 봐야 하는데 본분을 잊고 빠져들어 뵈어버렸습니다. 소식지 넘 좋앙~ *_나디*

소머즈 북토크 열어주세요, 개구리 대표님! *_비아*

올해도 소식지, 여러모로 좋습니다:) *_느긋*

수지꿈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일곱번째 소식지! 이번에도, 언제나처럼, 역시♡ *_울챙이*

2023년 <수지꿈 이야기> 마감을 시작하며 이제는 소식지 정도야 '까짓게!'라며 호기로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맘처럼 쉽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든든한 우리편(우리 함께하는 편집위원회)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느긋, 울챙이, 나디, 비아, 제인, 하이밍, 셋별, 와디, 은비**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어찌 표현하리오!! ♥

그리고 우리의 원고청탁을 흔쾌히 받아주시어 멋진 글을 써 주신 모든 분들, 궁시렁쟁이 아이들을 끌고 당겨 많은 원고를 뽑아내 주신 선생님들께도 무한 감사드려요!!

이렇게 일곱번째 <수지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2023년도 함께 마무리 합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수지꿈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_소머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고기동 533번길 30
031.264.4552
www.sujidream.org



 YouTube

수지꿈

NAVER

수지꿈학교